와인 칵테일로 폼나는 여름을

metro
메트로 2014년 7월 9일 수요일 제3010호 www.metroseoul.co.kr

외국인 안방 예능 휘젓는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에 7조2천억원(잠정실적)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8일 공시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8조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2년 2분기(6조4천600억원) 이후 처음이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위로 먹구름이 끼어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어닝쇼크 탈출구 있나

2분기 영업이익 2년만에 8조 이하… 경제 충격파 "원화 강세 영향 제한적, 신제품 출시로 호전될 것"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이 2년 만에 처음으로 8조원 밑으로 떨어지며 '어닝쇼크(실적 하락 충격)'를 겪었다. 우리 경제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이번 어닝쇼크가 한국경제를 위험하게 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실적 하락을 두고 삼성전자 측은 "일시적인 것"이라며 "3분기 실적은 다소 나아질 것"이라고 낙관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연결회계기준 잠정실적으로 영업이익이 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4.45% 전분기 대비 15.19% 감소한 실적이다.

2분기 매출액은 52조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9.5%, 전분기 대비 3.13% 줄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 악화의 원인으로 △지속적인 원화 강세 △스마트폰 태블릿PC 판매 감소와 재고 감축을 위한 마케팅 비용 증가 △무선 제품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시스템LSI와 디스플레이 사업 약세 등을 꼽았다.

이번 삼성전자의 실적 저하는 전체 영업이익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IT·모바일(IM)부문 실적 부진와 맞물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분기 IM부문의 영업이익은 4조원대에 그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1분기 IM부문 영업이익이 6조4300억원으로 전체 영업이익의 76%를 차지했던 점을 고려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처럼 실적 의존도가 높았던 IM부문 실적 급감이 전체 실적 저하로 직결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스마트폰시장 성장률 둔화 속에 중국 유럽 시장 내 업체 간 경쟁 심화로 중저가 스마트폰 유통 재널 재고량이 증가하며, 셀인(제조업체가 유통업체에 판매하는 물량)이 줄었다.

또 3분기 성수기와 갤럭시 노트4 등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재고량 축소를 위해 마케팅비를 공격적으로 집행한 것도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스마트폰 시장 성장세 둔화와 함께 삼성전자가 저성장 기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국내 제조업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 비중을 고려할 때 장투 저성장 패턴이 장기화되면 추밤 인관산업은 비롯해 전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났다.

이승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고급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애플 아이폰에 밀리고 중저가 시장에서는 중국산 제품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준 KB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업체 중 삼성전자에 의존도가 높은 회사가 많아 이들을 중심으로 2~3분기 실적 충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3분기 실적 회복을 자신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원화 강세로 실적 악화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3분기엔 스마트폰·태블릿PC 등에 대한 재고 감축을 위한 마케팅비도 2분기에 비해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폰·태블릿PC의 신제품 출시에 따른 판매 증가와 메모리반도체 사업의 성수기 효과 등으로 실적 증가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영찬 신한금융투자 연구원도 "삼성전자는 3분기 가전 성수기와 메모리 호조세 지속으로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스마트폰 판매 역시 실적 증가가 예상되나 애플 아이폰6, 중국 업체 신제품 출시에 따른 마케팅비 증가가 변수"라고 밝혔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태풍 오키나와 강타

50만명 대피 오늘 제주 폭우

제8호 태풍 '너구리'가 최대 풍속 51m/s의 중형 태풍으로 성장하며 일본 오키나와를 강타했다.

너구리는 8일 오전 11시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에 접근, 오키나와 본도 등이 폭풍권에 들어갔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이 이날 저녁 오키나와 본도에 접근한 후 세력은 다소 약해지지만 10일 규슈에 상륙해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대 풍속은 오키나와에서 51m/s, 가고시마현 아마미에서 25m/s이다. 오키나와현의 약 21만 세대 50만 명에게는 피난 권고령이 내려졌다.

제주 인근 해역은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상태다. 9일부터 제주도에는 강풍과 함께 50~120㎜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남해안과 경남 동해안은 예상 강수량이 30~80㎜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 등 내륙 지방은 태풍의 영향을 덜 받겠지만 돌풍이 불고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윤다혜기자 yd0@

더 완전한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국가 대개조 범국민위 구성

정 총리, 민·관 합동 추진체계 발족…국민 동참 호소

정홍원 국무총리는 세월호 참사 후 국가개조와 관련해 "민간 각계가 폭 넓게 참여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가칭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 를 구성해 민·관 합동 추진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국가개조 여정은 그 폭과 깊이를 가늠해 보았을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국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며 사회 각계 각층에서 관심을 갖고 함께 실천에 동참해 주셔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 산하에 전문 분과를 둬 공직개혁과 안전혁신, 부패척결, 의식개혁 등 국가개조를 위한 국민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면서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안전혁신과 관련해 "안전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위원회를 통해 충실한 논의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완성하겠다"며 "공직자부터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도록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 배경에 대해 정 총리는 "절자해지의 심정에서 국가개조라는 대소명을 완수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께 책임을 지는 하나의 자세라는 생각을 하게됐다"며 "이제 저는 시대적 소명을 받아 세월호 사고 수습과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국가개조로 대한민국의 대변화를 이루는데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설명했다.

/조현정기자 hj@metroseoul.co.kr

7·30 재보선 포스터 제작 30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교동의 한 인쇄소에서 경기도선관위 직원들이 프린트 된 재·보궐 선거를 알리는 포스터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4대강 사업, 정부는 책임 없나

기자 수첩
박선옥 <경제산업부 기자>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는데 국민들은 범죄집단 보듯 하면서 토건족이라고 비아냥대고 정말 할 말 안납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의 푸념이다.

결국 삼성물산이 4대강 공사 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이명박 정부가 담합을 알면서도 묵인·조장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을 입장인 기업이 절대갑 격인 정부의 책임론을 거론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같은 소송을 진행 중인 나머지 7개 건설사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나머지 업체들도 직접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을 뿐 삼성물산과 입장이 다르지 않다. 오히려 삼성물산이 나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았다며 속 시원하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실제 4대강 담합은 건설사들의 과도한 욕심에서 비롯됐다기 보다는 정부가 유도한 측면이 크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전 공사를 마쳐야 한다는 이유로 1차 턴키 15개 공구를 일시에 발주했고, 재판부도 "정부가 담합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건설사들은 4대강 공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언론과 국민의 따가운 질책에도 숨죽이며 참아야 했다. 심지어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 상당수가 돈을 벌기는커녕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정부가 빌미를 제공했더라도 건설사가 담합을 하지 않았으면 그만이었을 일이다. 또 장사꾼이 손해 봤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을 터다.

그렇지만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정부의 책임은 뒤로 한 채 건설사에만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업계 전체를 매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잘 부탁합니다" 최경환 여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경기 활성화위해 정책 완화"

최경환 청문회서 밝혀…4명 후보자들 자질·의혹 등 검증

국회는 8일 기획재정부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 제기된 의혹 등을 검증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DTI 규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현실에 맞게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후보자 자녀가 삼성전자와 미국 골드만삭스에 취직해 있는데 부총리라는 직위는 해당 기업이 수조원의 이익을 낼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자리"라며 "미국에서는 투자은행이 한국 고위관료 자녀들을 취업시킨 사례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나는 문제 없다고 할 일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최 후보자는 자녀 문제에 대해 "경제부총리는 세금이다 온갖 정책을 취급하는데 거기 해당안되는 국민과 기업이 어디 있겠느냐"며 "그렇다고 해서 공직자의 자녀는 정당한 인사절차를 거쳐 취업을 못하게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투기 의혹과 관련해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변 전교조 '노동의 결정'과 관련 정부를 두둔한 결정이라는 야당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한편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조현정기자

뉴스&뉴스

북한군 올해 군사분계선 5차례 월경

● 군 소식통은 8일 "북한군이 올해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기습 침투와 매복, 습격훈련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북한군이 5차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에는 북한군 3명이 DMZ 내에 있는 GP(소초)에서 600m 떨어진 추진철책으로 접근해 우리측이 설치한 '귀순 유도벽'을 뜯어간 사건도 발생했다.

기동민 동작을 출마 선언…회견장 아수라장

●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7·30 재·보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동작을 전략공천을 수용한다고 8일 밝혔다. 기 전 부시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하지만 회견장은 허동준 전 동작을 지역위원장과 지지자들이 반발하며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여야 오늘 이병기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

● 여야는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9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8일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9일 오후 4시에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문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세부 문안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은 남아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 비서관 비리 의혹

청와대 경제수석실 중소기업비서관의 금품·향응수수 등 비위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8일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경제수석실의 내사 여부 등 관련한 모든 사안을 확인 중"이라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국내 언론은 "청와대가 경제수석실 한 비서관의 금품과 향응 수수 등 비위의혹을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품·향응 제공자는 정부가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거액의 펀드 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는 인물이어서 유착의혹이 사실일 경우 파문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그는 2008년부터 2012년초까지 한국벤처투자의 한 간부와 함께 창업투자사의 한 대표로부터 수시로 룸살롱 접대 등을 받았고 민정수석실은 벤처투자의 간부가 창업투자사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현금을 정기적으로 수수했다는 내부자 제보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mjkim@

구난업체 '언딘' 압수수색

관제 소홀 진도 VTS 해경 3명 구속영장 청구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구조 수색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일어난 특혜 의혹과 관련 검찰이 언딘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광주지검 해경수사 전담팀은 7일 경기 성남에 있는 언딘 본사, 목포 사무실, 진도 사고 현장에 언딘 리베로호 바지 내 사무실 등 11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언딘 김모 대표 등 주요 임원의 집도 포함됐다.

검찰은 구난업계 선정 과정에 해경 간부 등이 개입했는지 등 언딘과 해경 사이의 유착 여부를 파악하려고 계약 관련 서류,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복수의 해경 간부와 김 대표 등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 김 대표는 해경의 법정단체로 지난해 1월 출범한 한국해양구조협회의 부총재다.

한편 검찰은 근무 규정을 어기다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놓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다혜기자

총체적 부실이 세월호 참사

감사원 "부처·해경·한국선급 등 비리 집약" 40명 징계·11명 수사 요청

감사원이 '세월호 참사'는 배 도입에서부터 운항, 사고후 대응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총체적 업무 태만과 비리 등이 집약된 사고라고 결론지었다.

감사원은 지난 5~6월 50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 1·2단계로 나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선급 등을 대상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를 벌여 8일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점검 자료조작 계약서 변조 ▲세월호 증선은 인가한 인천항만청의 부당인가 ▲한국선급의 복원성 검사 부실 수행 ▲해경의 부당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선박의 운항관리자인 해운조합이 세월호 출항 전 화물중량, 차량대수, 고박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확인하지 않은 것이나 청해진해운이 화물을 초과 적재하면서도 복원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등이 원인이 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사고 발생 후 해경의 구조대응도 취약해 배 속에 있었던 승객 구조 기회도 수차례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업무태만 등으로 구조 골든타임을 놓쳤을뿐 아니라 해경이 사고 초기 세월호의 교신 등을 통한 사전 구조조치도 미흡했다. 재난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도 대응역량 부족, 기관 간 혼선 등으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해수부, 해경, 안행부 등 관련자 40명에 대해 징계 등 인사 조치를 요청을 검토하는 한편 향응수수 등 비리 사안 관련자 11명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아파트 화장실 흡연 삼가자

위아래층 5분만에 '솔솔'

아파트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면 5분 만에 위아래층으로 연기가 퍼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아파트 실내 흡연과 미세먼지 특성을 분석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화장실에서 환풍기를 켜고 담배를 피우면 미세먼지가 위아래층 가구로 5분 이내에 퍼져 나갔다. 흡연자가 없는 다른 집까지 모두 환풍기를 계속 틀어야 연기가 아파트 밖으로 배출됐다.

특히 24㎡ 기준의 닫힌 방에서 담배를 피우면 2개비만 피워도 지하철 승강장 수준으로 공기가 오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개비를 피우면 납 농도가 0.185㎍/㎥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는 지하철 승강장의 납 농도(0.092㎍/㎥)의 배가 넘는 농도다.

/윤다혜기자

안전한 대한민국을 향해! 8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앞 잔디밭 광장에서 열린 '안전문화 확산 전국 캠페인 출정식'에서 참가자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을 약속해요!"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저스뉴스

재선 광역의원 26% 4년간 질의 '0'

의정 활동 불성실 심각

광역의원들의 불성실한 의정 활동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아무 관심없이 그들에게 다시 표를 던졌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8일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광역의원의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정원 705명 중 재선에 성공한 의원은 315명으로, 평균 재선 비율은 44.7%였다. 이중 46명(15%)은 지난 회기 4년간 대표발의한 조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82명(26%)은 시(도)정 질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15명(70%)은 4년간 3건 미만을 대표발의 했으며 평균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바른사회는 "임기 내내 발의나 시(도)정 질의를 한 건도 하지 않았음에도 재선 의원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은 현 지방선거제도와 유권자 태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라며 "지역 주민은 광역의원이 누구인지 잘 모를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에 무관심해서 빚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승호기자

아프리카 인재 육성 나선다

덕성여대는 최근 공익재단 아큐다은 동행과 '아프리카 여성 젊의 인재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유엔 위민 등 국제기구와 공동 프로젝트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 ▲아프리카 우수 인재 발굴 ▲인재 교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각광받는 빅데이터 전문가로 진출

내 적성을 찾아라! 방송통신대 Q&A ⑧ 정보통계학과

직장을 다니면서 자신에게 지금 하는 일이 맞는지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엉겁결에 대학에 진학했거나 결혼을 하면서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를 그만 둔 주부도 있다. 한 학기 30만원대의 착한 등록금으로 국립 한국방송통신대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길을 알아본다.

Q 정보통계학과는 어떻게 개설되었나

A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가능한 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개설되었습니다. 등록금은 35만원 내외이며 다양한 장학금이 있습니다.

Q 정보통계학과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나

A 경제·경영·사회·생명과학 등의 데이터로부터 의미있는 패턴을 찾을 수 있는 빅데이터의 이해, 데이터시각화 등 데이터 분석 교과목부터 다양한 데이터를 컴퓨터로 처리·분석할 수 있는 컴퓨팅 통계패키지 등 교과목들을 학습합니다. 또 바이오정보학, 표집설명, 여론조사 등도 공부합니다.

Q 졸업 후에 진로는 어떻게 되나

A 빅데이터분석, 품질 조사·바이오정보 분석 등 데이터 분석 분야의 전문가로 진출할 수 있으며 병원, 암센터와 같은 생명과학 연구 분야 등에서도 근무할 수 있습니다. (문의 02-3668-4690)

/윤다혜기자

한국방송통신대 정보통계학과 조성스터디 학생들이 계곡에서 래프팅을 하고 있다. /방송대 제공

정부청사서 총기 오발 사고

은폐하려던 경찰 문책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비를 서던 의경의 소총에서 실탄이 발사되는 어처구니 없는 오발 사고가 발생했지만 경찰이 은폐가려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6일 오후 9시께 서울지방경찰청 정부서울청사경비대 718전투경찰대 소속 김모 일경이 어깨에 메고 있던 K-2소총에서 실탄 한 발이 발사됐다. 당시 김 일경은 세종로 정부청사 별관 서문 초소에서 경비를 서고 있었고 실탄이 하늘로 발사돼 인명 피해는 없었다.

평소 의경이 소총을 휴대하지 않지만 당시 한미도 방어를 위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독수리 연습' 기간이어서 소총이 지급됐다. 실탄이 발사된 직후 상황을 파악한 718전경대장 김모 경감은 실탄 사고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문이 퍼지면서 보름 후 내부 제보로 감찰이 벌어졌다.

경찰은 지난달 외부 위원이 참석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경감에게 견책을, 청사경비대장 김모 총경 등 4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김기중기자 mkim@

'묵비권' 쪽지 경찰이 유도?

김형식 CCTV 증거보전 신청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의 변호인이 경찰에서 표적 함정수사가 이뤄졌다며 유치장 내 CCTV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달 22일 오전 5시부터 7월 4일 오후 3시까지 서울 강서경찰서 유치장 내부를 촬영한 CCTV 기록과 저장장치, 변호인접견실 내 동영상녹음기기와 녹음파일 등을 압수 보관해 달라는 증거보전 신청을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8일 밝혔다.

변호인은 "경찰이 유력 증거라고 밝힌 '묵비권을 행사하라' 등의 쪽지는 경찰이 유도한 것"이라며 "진실이 담긴 CCTV가 조작되거나 소멸될 우려가 커 증거보전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김승현기자

서울대 지역균형 문 좁아졌다

2016학년 입시 치르는 고교 2년생 모집 줄여

서울대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에게 적용되는 2016학년도 입시에서 자연계 상위권 학과의 지역균형선발전형 모집인원을 줄이면서 지역인재들의 서울대 입학문이 더 좁아졌다.

8일 서울대가 공개한 '2016학년도 입학전형 주요사항'에 따르면 의대는 전체 모집인원 95명 중 45명을 수시모집 일반전형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이는 2015학년도 수시 일반전형 모집인원 35명보다 10명 늘어난 수치다. 대신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과 정시모집 정원을 5명씩 줄여 각각 25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물리·천문학부 천문학전공은 수시 지역균형선발전형 모집인원을 전원 일반전형으로 대체했다.

이에 따라 물리·천문학부는 전공 구분없이 뽑는 광역모집에서 수시 일반전형과 지역균형선발전형 정원을 1명씩 줄이는 대신 천문학 전공 모집인원을 5명에서 7명으로 늘렸다.

천문학 전공은 2015학년도 입학전형에서는 전원 수시 지역균형선발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지만 2016학년도에는 7명 모두 일반전형으로 뽑는다.

수시와 정시를 모두 합한 전체 모집인원은 2015학년도보다 3명 줄어든 3135명으로 확정됐다.

수시 일반전형은 1684명(53.8%)으로 전년도보다 13명 늘어난 반면, 수시 지역균형선발전형은 681명(21.7%), 정시는 766명(24.4%)으로 각각 11명과 5명 줄었다.

/윤다혜기자 yd@metroseoul.co.kr

썩어버린 강바닥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가 8일 오전 영산강 승촌보에서 걷어 올린 강바닥 뻘을 채취해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박 교수는 영산강 강바닥이 승촌보 공사로 모래가 사라지면서 정화기능을 상실해 바닥이 썩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장마철 교통사고 더 조심하세요

매년 560명 사망 "속도 줄이고 공기압 높여야"

매년 장마철에 2만4000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560명 가량이 사망하고 3만6000여명이 다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손보협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장마기간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7만2026건으로 집계됐다. 이 사고로 1067명이 사망하고 11만385명이 부상했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년 장마철에 2만4010건의 교통사고로 559명이 숨지고 3만6795명이 다치는 셈이다.

특히 3년간 장마철 사고 가운데는 빗길 교통사고가 1만3693건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했다.

비오는 날에는 수막현상으로 큰 사고가 날 위험이 큰 만큼 평상시보다 속도를 20% 이상 줄여야 한다. 특히 집중호우 등 악천후에는 반드시 50% 이상 감속해야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또 타이어의 공기압이 낮으면 수막 형성이 쉬운 만큼 우천시에는 평소보다 공기압을 10~15% 높게 유지해야 한다. /윤다혜기자

용산, 창업센터 입주 모집

서울시 용산구가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구 창업지원센터는 2011년 9월 개소해 15개 호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입주기간이 만료되는 6개 호실에 대한 입주자를 오는 8월 1일까지 모집한다.

노원, 어르신 위한 프로그램

서울시 노원구는 65세 이상 남성 독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는 ▲어르신돌봄지원센터 내 기본 돌봄 대상자 ▲지역의 복지관 추천 등 36명을 노소·아쿠아로빅 수영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에너지 사용 제한 단속

서울시 강동구가 7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관내 건물별로 에너지 사용 제한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공공기관 건물 냉방온도 제한 ▲민간건물 냉방온도 권장 ▲개문 냉방영업 제한 등이다.

서울 어린이집 17% 공기질 심각

부유세균 등 기준치 초과

서울시내 어린이집들의 공기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8일 발표한 지난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어린이집 133곳 중 23곳(17.3%)의 실내공기가 법이 정한 기준치를 초과했다.

강동구의 한 어린이집의 경우 부유세균이 2325CFU(세균 개체수)로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정한 기준치(800CFU/㎥ 이하)의 3배에 육박했다. 금천구 한 어린이집은 부유세균이 2317CFU였다.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HCHO)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 외에도 산후조리원(2곳), 학원(4곳), 의료기관(2곳), 대규모점포(3곳), 박물관(1곳), 전시시설(1곳)에서도 대기질 오염도가 기준치를 넘었다.

시는 공기질 유지 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집에 대해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올해 재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산기자

슈퍼태풍 '너구리' 오키나와 강타 8호 태풍 너구리(NEOGURI)가 8일(현지시간) 일본 남부 오키나와를 강타한 가운데 나하 거리에서 여성들이 강풍과 폭우 속에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날 오키나와현의 약 21만 세대 50만 명에게 피난 권고령이 내려졌다. /AP 연합뉴스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대비한다?

미·일협력신법 제정 검토… 집단자위권 후속 조치

집단자위권 추진으로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일본이 미국과의 협력에 목을 매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 등에 대응하는 방안을 포함한 포괄적인 '미·일 협력 신법'의 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반발을 불러일으킬 조짐이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의 진전을 보아가면서 일본정부가 미·일 협력 신법 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8일 보도했다. 미국과 일본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일본의 새 정부 견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르면 연내에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란 설명이다.

1997년 개정된 현행 가이드라인은 평시, 주변사태, 일본 유사시 등 3가지 상황에 대한 미·일 군사 협력의 기본 방침을 담고 있다. 하지만 주변사태법 등 현재 일본의 법률은 특정 사안이 발발해 한반도 유사시 등 '주변사태'로 인정되는 시점까지의 미·일 간 협력에 대해서는 명확한 시점을 담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이번 협력 신법에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후방지원 역할 등을 명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신문 63% 집단자위권 반대

일본 언론 대부분은 아베 신조 정권이 지난 1일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기로 결정한데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쿄신문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이 난 다음날인 지난 2일 42개 주요 지방지의 사설을 분석한 결과 3/4가지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에 반대하는 논조였다고 이날 보도했다.

홋카이도 신문은 "일본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다"는 사설을 실었고, 주니치 신문은 "헌법 9조 파기에 해당하는 폭거"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했다. 오키나와의 류큐신보는 "일본이 '악마의 섬'으로"라는 극단적인 제목을 사설에 붙였다.

이 같은 경향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에 찬성하는 요미우리·산케이와 반대하는 아사히·마이니치로 거의 나뉘어 양분된 중앙지(도쿄에 본사를 둔 전국지)들의 보도 양태와 큰 차이가 있다고 도쿄신문은 분석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Pesquisa. Com Copa, atividade do comércio cai 3,2% em junho

A atividade do comércio recuou 3,2% em junho frente ao mês anterior, segundo pesquisa pela Serasa Experian. Na comparação com junho de 2013 houve leve alta de 0,7%, variação bem abaixo da registrada em maio, de 5,7%.

De acordo com a consultoria, a redução do expediente do comércio durante

월드컵 특수 어디로 갔나

metro Brazil

브라질의 상거래 규모가 6월 들어 3.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드컵 효과를 누렸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결과다.

월드컵 경기가 있는 날에 맞춰 도시 전체에 휴가가 선포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휴가를 맞이한 소비자들이 쇼핑센터와 가게 대신 해변과 같은 휴양지로 발길을 돌렸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높아진 할부 이자율도 소비자들의 발목을 잡았다. 한 번에 목돈을 쓰기 부담스러운 소비자들은 보통 할부로 물건을 구매하는데 이마저도 여유롭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줄어든 일자리도 소득 자체를 감소시켜 소비자의 전반적인 구매력을 하락시키는데 일조됐다. 한편 섬유, 의류, 신발, 액세서리 등의 분야는 간신히 현상을 유지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건축자재(-13.1%), 연료와 윤활유(-12.3%), 자동차 부품(-6.4%), 식음료(-4.25%) 등 나머지 분야는 모두 하락했다.

/메트로 브라질 ·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결국 전쟁?

'피의 보복' 이어 공습 대결…일촉즉발

10대 소년들의 납치·살해가 불러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피의 보복'이 전쟁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습에 맞서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가 로켓포로 반격하면서 양측 간 긴장이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AP·AFP·CNN 등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오후 하마스가 발사한 로켓포 가운데 16발이 가자지구에서 동남쪽으로 40㎞ 정도에 있는 베르셰바에 떨어졌다. 특히 하마스는 로켓포 공격을 했다고 이례적으로 발표,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한 직접 대응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날 새벽 가자지구와 이집트 접경지역인 라파지역을 대대적으로 공습, 하마스 요원 8명이 사망했다. 또 이스라엘은 예비군 동원령까지 내렸다.

이스라엘 정치권에서도 강경론이 득세하고 있다. 극우파인 아비그도르 리베르만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정치적 연대를 끝낸다고 선언했다.

한편 지난달 말 유대인 10대 소년 세 명이 납치·살해된 뒤 팔레스타인 소년 무함마드 아부 크다이르를 보복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유대인 6명(미성년자 3명 포함) 가운데 3명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함마드의 납치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도 공개됐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역 상황을 악화시키고 유혈사태를 일으키는 극단주의자들을 어느 쪽이든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살인과 선동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히로시마·나가사키에 원폭구름

중국주간지 지도 실어 논란

중국의 한 주간지가 원폭을 상징하는 버섯구름을 표시된 일본 지도를 실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교도통신은 중국 충칭시의 주간지 충칭첨년보 최신호가 공익광고 페이지에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불길과 함께 버섯구름이 솟아오르는 모습을 담은 일본 지도를 실었다고 8일 보도했다. 특히 '일본이 다시 전쟁하기를 원한다'는 문구가 중국어와 일본어로 기재됐다고 덧붙였다.

이 잡지에는 지난 40년간 중국의 대일 정책은 강경이나 행동 면에서 관용이 지나쳤다. 경계감을 높여야 한다'는 평론도 실렸다.

이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정말 상식을 의심할만한 일이고 피폭자의 정서에 반한다"며 "일본은 평화국가로서의 행보에는 전혀 변화가 없으며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계속 정중하게 설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market index <8일>

코스피	2006.66	(+1.54)
코스닥	554.90	(+1.75)
금리	2.65	(+0.04)
환율	1011.50	(-0.70)

뉴스&뉴스

코스콤 해킹방어대회 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코스콤 주최 해킹방어대회 '시퀸인시이드(Secuinside) 2014' 본선에서 참가자들이 문제를 풀고 있다. /연합뉴스

7월에도 기준금리 동결 전망

● 국내 채권전문가 대다수가 7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국내외 채권 전문가 1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4.6%는 이달 기준금리(현 2.50%)가 동결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8일 밝혔다.

6월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 시장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됐지만, 국내외 경기지표가 주춘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어 동결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란 분석이 우세했다. /김민지기자 minji@

찍스 스마트폰 사진 장당 10원

● 디지털사진 인화기업 찍스는 8월 7일까지 스마트폰 이미지를 사진으로 인화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폰 사진인화 계몽 이벤트'를 연다.

이번 이벤트는 찍스 모바일웹(m.zzixx.com) 또는 앱으로 주문하는 모든 회원들에게 3X5(8.9cm X12.7cm) 사이즈 사진인화를 최대 50장까지 1장당 10원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서울 지역은 주문 6시간 이내에 배송받을 수 있고 배송비는 별도 부과된다.

최근 찍스는 안드로이드 앱 2.0 버전을 새롭게 출시했다.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최대 A3 사이즈까지 손쉽게 사진인화 주문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박성준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남규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인호
광고문의	(02)721-9551~3
독자센터	(02)721-9833

2002년 5월 31일 창간/일반일간 서울 라00038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될까

미래부·이통사 VS 방통위·제조사 '찬반 엇갈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 유통법)'의 10월 시행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세부 시행령을 결정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단말기 유통법의 최대 쟁점 사안인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과 제조사·이통사 간 분리공시제 결정을 두고 이동통신 업계와 제조사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보조금 상한선과 관련해선 현행 27만원에서 5만~10만원 가량을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보인다. 반면 분리공시제 도입 여부를 놓고 의견이 크게 엇갈려 최종 결정이 주목받고 있다.

단말기 유통법이 본격 시행되면 이동사와 제조사는 각 휴대전화 단말기에 부여되는 보조금을 공시해야 한다. 보조금은 보통 이동사가 주는 지원금과 휴대전화 제조사가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나뉜다. 이들 각각 따로 공시할 것이냐, 둘을 합친 총합의 보조금을 공시할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래부와 통신업계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미래부는 단말기 유통법 특성상 보조금을 받는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를 위해 분리공시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분리 요금제를 위해서는 이통사와 제조사 간 보조금이 명확히 구분돼야 소비자가 보조금 공시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분리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은 분리요금제 선택 시 더 적은 할인을 받아 손해를 본다고 의심할 수 있고, 결국 해당 요금제에 대한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이통사 역시 통신시장 혼탁 상황 방지를 위해서라도 투명한 공시가 이뤄져야 한다며 분리공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그동안 보조금이라고 하면 마냥 이통사에서만 지급하는 것으로 여겨진 것이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시장과열 시 이통사만 방통위로부터 일방적인 규제를 받아 왔다"고 토로했다.

반면 제조사 측은 "단말기 유통법 제정 당시부터 이미 논의가 끝난 일"이라며 분리공시제 도입에 강력 반발했다.

실제 지난해부터 단말기 유통법 통과전까지 휴대전화 제조사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다. 특히 보조금 공시 여부를 두고 정부와 제조사 간 장려금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문제를 일단락 지었다.

당시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은 "제조사 장려금의 경우 국내와 해외에 차이가 있어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외 사업을 하는 데 심각한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역시 이처럼 단말기 유통법 통과 당시 제조사별 장려금 공개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부분을 들어 분리공시제 도입이 쉽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팬택 운명 오리무중 8일 팬택 채권단이 이동통신 3사에 채권 1800억원의 출자전환 여부 결단할 시간을 더 주기로 결정했다. 팬택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이통사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단독 파트너십 제휴…첫 제품은 크롬캐스트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이 티몬과 손잡고 소셜커머스 시장을 공략한다.

티몬은 8일 구글의 공식파트너로 선정됐다고 밝히고 첫 제품으로 '크롬캐스트'를 내놓았다.

이번 파트너 제휴로 티몬은 향후 구글이 출시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을 단독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소셜커머스가 첨단 IT기기 판매처로 떠오른 셈이다.

이 제품은 일종의 미디어 스트리밍 기기로 유튜브, 구글 플레이 무비, 티빙, 푹 판 등 그간 주로 스마트폰이나 PC로 즐겼던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의 동영상을 TV에서 볼 수 있게 해준다.

USB 메모리와 비슷한 크기로 제조돼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으며 TV HDMI 단자에 꽂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티몬은 'N스크린 서비스 티빙'의 6개월 무제한 이용권을 포함해 6만2400원에 선보이며 12개월 무제한 이용권, 단말기(4만9900원)만 파는 방식 등 3가지 옵션을 준비했다.

또 조만간 스마트폰과 노트북의 전체 화면을 그대로 TV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미러링 기능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게임, 오피스 프로그램, SNS 등 평소 자주 이용하는 프로그램과 앱을 TV화면으로도 볼 수 있게 된다. /박성준기자 zen@

불법 대부 전화번호 즉시 중지

금융위, 9월19일부터 시행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즉시 이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와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시·도지사와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미래부에 요청할 수 있고, 미래부는 이를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신속이용정지제도를 운용해왔으나, 이는 법적 근거없이 통신사 약관을 이용하는 형태로 운용됐다.

개정안은 또 전화번호 이용중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과 처리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도 담았다.

전화번호 이용중지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서면으로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타당하면 즉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금융기관이 대출의 최고 이자율(34.9%) 초과 여부를 계산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실제 대출 기간을 기준으로 이자로 환산하도록 하고 했다.

다만 상환 금액의 1%는 이자가 아닌 부대비용으로 인정하되 1년 이상 장기 대출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김현정기자 hjkim@

아시아나항공 여름철 웰빙 보양식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이 인천공항 자유단지에 위치한 아시아나 기내식 사업 LSG 스카이쉐프에서 여름철에 특화된 다양한 기내 보양식을 선보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

하이브리드형 예금 봇물

예금·보험 결합—절세·수익 '두마리 토끼 잡기'

저금리 상품이 지속되면서 예금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고객을 잡기 위해 시중은행들이 '하이브리드형 예금'을 내놓고 있다.

'하이브리드형 예금'은 증시나 보험과 연계되는 상품으로, 원금을 보장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지급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지수연동예금(ELD) 상품인 '세이프지수연동예금'을 내놨다. 이 상품은 투자자산인 코스피200지수에 따라 정기예금 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연 1.5~9.0%까지 가능하다. 지점이나 인터넷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기업은행의 '보험 품은 정기예금'은 정기예금과 저축성 보험을 결합한 상품이다. 절세와 수익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지난해 8월 출시 이후 10개월 만에 2000억원이 판매됐다.

상품은 5년만기 정기예금과 5년납 10년만기 저축보험으로 구성돼 있다. 가입시 목돈을 5년 만기 정기예금에 예치하면 5년간 매달 원금과 이자가 10년만기 월 적립식 보험으로 자동 이체된다. 이 상품은 보험으로 이체되기 전까지는 현재 평균 예금금리보다 높은 연 2.94%를 적용받고, 이체 후에는 원금에 이자를 더해 보험의 공시이율을 적용받아 보다 높은 수익은 기대할 수 있다.

만기에 한꺼번에 이자가 집중되지 않고 매달 분산 지급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금액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 총 가입기간안 10년 후에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어 절세플랜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또 각 보험상품에 따라 중도인출·연금전환 기능과 상해 후유장애 보장 등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가입대상은 개인이며 가입금액은 3100만원 이상이다.

외환은행도 주가지수연동 정기예금인 '넥스트 초이스 정기예금'을 주기적으로 판매한다. 코스피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최저금리가 없는 대신 최고 연 15%를 목표로 하거나 최저금리(연 0.5~2.0%)가 있으면서 금리가 낮은 상품 중에서 고를 수 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예금취급기관 가계빚 700조 육박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이 700조원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예금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상호금융 등)의 가계대출 잔액은 모두 69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달 전보다 무려 3조8000억원 늘어난 수치로 지난 2월 말의 688조1000억원 이후 4개월 연속 사상 최고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대출 유형별로 보면 5월말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428조1000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2조6000억원 늘었다. 마이너스 통장과 예·적금담보대출 등 기타 대출도 1조2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486조원으로 2조원 올랐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도 주택 담보대출 등의 영향으로 1조8000억원 증가한 21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조4000억원 늘어난 425조9000억원으로 나타났고 비수도권은 2조4000억원 오른 273조4000억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체 가계빚 가운데 예금취급기관 대출은 지난 3월 말 기준 67.6%를 차지했다. 이 밖에 대부업체와 보험사를 비롯한 기타 금융기관 대출과 카드사 판매신용까지 포함한 전체 가계빚(가계신용)은 같은 기간 1024조8000억원에 달했다.

/백아란기자 ❙ we12@ ...

상반기 훼손 화폐 17억원

5만원권이 가장 많아

한국은행이 올해 상반기 시민들에게 직접 새 돈으로 바꿔준 훼손 화폐가 약 1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은이 발표한 '2014년 상반기 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규모'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손상 화폐를 들고 한은 화폐교환 창구를 찾은 시민들이 교환한 금액은 16억91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2억7000만원(19.2%) 늘어난 수준이다.

이 가운데 손상 지폐 교환액은 8억2100만원이고, 나머지는 동전이었다.

한은 관계자는 "손상 지폐의 액면금액은 8억6100만원"이라며 "그러나 일부는 훼손 정도가 심해 반액 또는 무효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교환액이 액면액보다 4000만 가량 적다"고 전했다.

손상 지폐를 권종별로 보면 5만원권이 5억3900만원(65.7%)으로 가장 많았다. 또 1만원권(2억6300만원), 1000원권(1100만원), 5000원권(8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폐의 손상 사유는 장판 밑에 눌렸거나 습기 때문에 부패한 사례가 1005건(2억9800만원)으로 가장 많다. 불에 탄 사례 644건(4억2100만원), 칼질 등으로 조각난 경우 516건(5300만원) 순이었다. 교환된 손상 주화는 100원화(4억3800만원), 500원화(3억7100만원), 50원화(4500만원), 10원화(1700만원) 순이다.

한은은 훼손된 지폐가 원래 크기와 비교해 남은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을 교환해준다.

/... 기자

이마트 '후레쉬 센터'에서 저장 중인 수박 8일 경기도 이천 이마트 후레쉬센터 CA 저장고에서 직원들이 저장보관 중인 수박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업인도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15일부터 가입 가능

오는 15일부터 임업인도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저축 가입 요건이 명확해지며 운영상 미비점도 개선·보완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은 지난 1976년부터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3년이나 5년이상 가입시 정부가 저축 장려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그간 농·어업인, 축산업인만 가입 가능했던 목돈마련저축 가입 대상에 10ha 이하의 토지를 가진 임업인도 신규 추가됐다.

이들은 소득 기준으로 일반과 저소득 대상으로 분류되며 '안정적인 농어업외 소득이 있는 자'는 저축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이유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만기 해지때 보다 불리하게 지급됐던 장려금도 납입 기간별로 약정금리를 적용해 지급된다.

예컨대 저소득 5년 가입 후 4년만에 특별 해지를 할 경우 모두 13.6%를 받았다며 앞으로는 36.4%(연 9.6%)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법령 개정에 따라 부당 수령 장려금 환수 업무 절차도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 가입 농어민 범위를 명확화 하고 농어가 저축 가입 부적격자 차단 등을 통해 보다 투명한 농어민 재산형성 지원과 안정된 생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이통3사 알뜰폰도 '삼국지'

SKT 이어 KT·LGU+도 진출…중소 사업자 강력 반발

9일부터 이동통신 3사가 알뜰폰(MVNO) 삼국지를 펼친다. 기존 중소 사업자들과 시민단체는 대기업의 시장 잠식을 우려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자회사 KTIS와 미디어로그를 통한 알뜰폰 진출을 8일 알렸다. KT는 M모바일, LG유플러스는 유모비란 알뜰폰 브랜드로 9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SK텔레콤의 경우 SK텔링크를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세븐 모바일이란 알뜰폰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로써 알뜰폰 사업자 수는 30개가 넘게 됐다.

통신비 경감이란 정부 기조 속에 출범한 알뜰폰은 기존 이동통신망의 주파수를 빌려 서비스한다. 이 때문에 망 구축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 일반 이통사 요금보다 30~50% 저렴한 장점이 있다. 불편요한 이벤트와 요금 거품도 없앴다. 서비스 모델이 많지는 않지만 피처폰이나 3G폰을 많이 사용하는 중장년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통신비를 아끼기 위해 알뜰폰을 사용하는 젊은층도 늘어나고 있다.

알뜰폰은 중소 통신 사업자들의 성장을 비려한다는 고무적인 취지도 있었다. 하지만 알뜰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대기업 자본 진출이 증가하더니 이통3사까지 직접 알뜰폰 진출을 기정 사실화됐다.

이통3사가 알뜰폰 시장에서 격돌하게 되자 중소 사업자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통신 재벌이 알뜰폰에 진출하면 중소 사업자 중심의 알뜰폰 취지가 무색해지면서 공정 경쟁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미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통사 알뜰폰 사업 철수 운동 움직임마저 일어나고 있다.

알뜰폰 관계자는 "통신 3사의 지배력이 알뜰폰 시장에 그대로 내려오는 셈"이라며 "이통사의 전이력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 전체 이동시장을 통신3사가 다 먹겠다는 의미 아니냐"고 말했다.

또다른 알뜰폰 관계자는 "이동사의 알뜰폰 시장 진출은 결국 점유율을 지키는 수법"이라며 "이동사는 고가 시장, 알뜰폰은 저가 시장이란 구분이 있는데 이동3사가 알뜰폰 시장에 들어오면 이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통신 시장 자체가 이동3사에 잠식된다"고 말했다.

한 대기업 계열 알뜰폰 관계자는 "우리도 힘든데 중소 사업자는 더 힘들 것"이라며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3사의 알뜰폰 진출을 허가하면서 제시한 규제가 잘 지켜지는지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3사의 알뜰폰 사업을 두고 진통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날 알뜰폰 진출을 발표한 KT와 LG유플러스는 강한 마케팅 포부를 밝혔다.

KTIS 측은 "KT와 KT계열 알뜰폰 고객 모두를 우제한 음성통화 대상으로 적용하겠다"면서 진취무사업 계획을 내비쳤다. LG유플러스 미디어로그 알뜰폰 담당자는 "알뜰폰 고객 중에서도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LTE고객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무더위 날려줄 공기순환기 인기 8일 서울 용산 현대아이파크몰 지하지 수입 가전매장에서 모델들이 공기 순환기를 소개하고 있다. /현대아이파크몰 제공

'문화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전국 문화예술회관협회 소외계층 1만명 초청

현대자동차그룹은 7일 제주 해비치 호텔에서 한국문화예술회관협회와 '문화 융성 활성화 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학찬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회장, 김동호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 설훈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위원장,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현대차그룹 관계자, 페스티벌 참가자 등 총 1300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현대차그룹은 '해피존 티켓 나눔'과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을 각각 후원한다. 이를 통해 소외계층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 공연을 활성화해 균형 있는 문화 발전을 꾀할 예정이다.

2011년 시작된 현대차그룹 주관의 '해피존 티켓 나눔'은 전국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 일정 규모의 해피존 관람석을 지정해 지역 아동 센터 청소년, 독거노인 등 문화 소외계층이 공연을 관람하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전국 14개 문화예술회관을 지정해 문화 소외 계층 1만 명을 다양한 공연에 초청하며, 정부 주도의 '문화가 있는 날' 정책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해피존 티켓 나눔'을 지방 사업장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해 지역 밀착형 문화 사회공헌 사업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주관하는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은 문화 예술의 균형 발전과 활성화를 목표로 매년 제주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개최되고 있다. 전국 문화예술회관과 문화 예술 관련 단체 관계자, 일반인 관람객 등 약 1만6000명이 함께 즐기는 축제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은 7일 개막 행사를 시작으로 총 3일간 진행된다. 개막식에 문화 예술 전문가, 관람객 등 1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성 넘치는 공연과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아트 마켓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진행됐다.

이 밖에도 현대차그룹은 제주 공항, 천지연 폭포, 성산포항 등 제주 주요 지역에서 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 예술 등 다양하고 유쾌한 거리 공연으로 꾸며진 '현대차그룹 프린지 페스티벌'을 신설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 예정이다.

더불어 일회성으로 끝나는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전문가 모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illegible]기자

온라인게임 1위 넥슨 모바일 석권 야심

스트리트파이터4 등 13종 하반기 출시

국내 1위 게임사 넥슨이 모바일게임 시장 석권에 도전한다.

넥슨은 '던파', '메이플스토리'와 같은 온라인게임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마켓 리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모바일게임으로는 큰 재미를 보지 못했다.

모바일게임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신작을 여러차례 내놓았지만 대부분 쓴맛을 봤다. 하지만 하반기에 무려 13종의 신작을 서비스하기로 하면서 체질 개선에 성공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넥슨은 8일 미디어 쇼케이스 '넥슨 스마트 온'을 열고 자체 개발작과 퍼블리싱 작품 등 13종을 발표했다.

넥슨이 2년여 동안 개발해온 대작 RPG '프로젝트Q'와 온라인게임의 재미를 옮겨놓은 '포켓 메이플스토리', 그리고 1990년대 오락실 게임을 대표하는 스트리트 파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트리트파이터4 아레나' 등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넥슨 산하의 네브캣 스튜디오가 선보인 '마비노기 듀얼'은 12장의 카드를 구성해 운용의 묘미를 느낄 수 있도록 됐다.

이외에 '뱀파이어 공주', '라이랜드의 영웅들', '삼검호', '화이트킹덤', '룰삼국지', '히어로즈카이', '프로젝트OK', '공개토대왕' 등이 베일을 벗었다.

넥슨 관계자는 "해외와 국내에서 검증된 IP를 활용한 점, 넥슨의 창의적인 개발력을 접목한 점 등이 시너지를 이뤄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llegible]기자

30년 카메라 변천사 네트워크 카메라 제조기업 엑시스커뮤니케이션즈 창사 30주년을 맞아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위치동 엘타워에서 모델들이 초창기 카메라들을 보여주며 자동의 변천사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파트 계약했더니 분양가 내린다고?

'안심 보장제' 마케팅

아파트 할인분양에 따른 건설사와 입주민 간 갈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인천 영종하늘도시에서는 한 아파트 입주민이 할인분양을 규탄하는 집회를 벌이던 중 분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같은 할인분양은 미분양 아파트를 판매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히면서도 건설사에 대한 불신과 신규분양 아파트의 청약 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도 크다.

이에 따라 최근 할인분양 또는 계약조건 변경시 기존 계약자에게도 소급해주는 '안심보장제'를 내거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 수요자들의 불신을 잠재우고 기업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분양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림D&I는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에 단독주택 73가구의 '루시드 에비뉴'를 조성하면서 분양가 안심보장제를 실시키로 했다.

기존 연립형 타운하우스는 고분양가를 책정한 뒤 세대별로 할인분양에 들어가는 영업 전략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대림D&I는 처음부터 건축원가와 상품성을 고려한 적정 분양가를 책정하되 향후 할인분양으로 인한 계약자들의 피해를 차단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GS건설이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일원에 분양한 '한강 센트럴 자이'도 분양가 안심보장제를 적용했다. 특히 계약자들의 초기 부담을 줄여주고자 계약금 2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무이자 혜택 등도 제공하고 있다.

경남기업이 경기도 수원시 송죽동에 시공하는 '수원 아너스빌위즈' 역시 할인분양 시 이전 계약자에게 동일한 혜택을 보장해줄 방침이다. 또 입주 지정일까지 계약금 10% 중 9%만 납부하고, 중도금 전액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내용의 '수원아너스빌위즈 My Home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대원은 화성 동탄2신도시 A20블록에 선보인 '동탄 대원칸타빌 2차'에 동탄2신도시 최초로 계약조건 보장제를 내걸었다. 한국토지신탁도 충남 천안시 두정동에 분양한 '코아루 스위트'에 준공시까지 계약조건에 변경이 있을 경우 기존 계약자에게도 소급 적용키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변경된 분양가나 계약조건을 기존 계약자에 소급해 줄 경우 건설사 입장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분양 초기부터 수요자들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이 같은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o5820@metroseoul.co.kr

임대주택 규제 줄이고 혜택 늘린다

시·군·구에 등록한 임대주택이라도 1년 이상 입주자를 들이지 못하면 일반인한테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중순께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의무임대 기간(매입임대주택은 5년, 준공공임대주택은 10년) 중이라도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전체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1년간 20%를 넘고, 그 1년간 줄곧 비어 있었던 임대주택은 일반인한테 팔 수 있도록 했다.

등록한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에게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부도나 파산, 2년 이상 적자 같은 상황에 처하면 예외적으로 일반인에게도 매각할 수 있도록 해왔는데 이런 예외적 사유를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예정돼 있어 곧 철거할 임대주택도 중도에 일반인에게 팔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이미 등록한 임대주택(의무임대 기간 5년)도 의무임대 기간이 10년인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등록되지 않은 임대주택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준공공임대주택이 도입된 뒤 올해 5월까지 등록된 준공공임대가 95가구에 그쳤지만 각종 금융·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 개선이 마무리된 만큼 하반기부터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두비기자 kimdb@

'아이스크림 먹고 지중해 여행가요' 해태제과가 8일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 앞에서 지중해 여행권 등의 경품을 제공하는 '해태 아이스크림 먹고 꽃누나 따라 지중해 가자' 이벤트를 알리는 사진행사를 하고 있다. /해태제과 제공

GS건설, 하남 미사강변도시 '자이' 9월 분양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에 하반기 '자이' 브랜드가 첫 선을 보인다.

GS건설은 미사강변도시 A21블록에 지구 최대 규모의 '미사 자이(가칭)' 1222가구를 9월께 공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A21블록은 미사강변도시 서남쪽에 위치, 오는 2018년 개통 예정인 5호선 연장선 강일역과 미사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또 초등학교 예정부지 및 근린공원이 부지 남측과 접해 있으며, 중앙수변공원, 관공서, 상업시설도 가깝다.

GS건설은 '미사 자이'에 소비자 입맛에 맞는 차별화된 평면과 합리적인 가격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전용면적 85㎡ 초과 중 틈새 면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91㎡ 273가구 ▲96㎡ 798가구 ▲111㎡ 135가구, 펜트하우스 16가구로 구성하되 면적별로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한 신평면을 도입할 예정이다.

미사강변도시 '미사 자이' 조감도.

현재 ▲91㎡ 3룸+알파룸 구조 ▲96㎡ 전 세대 판상형 4룸 구조 ▲101㎡ 3면 개방 판상형 4룸 구조 등 실속 있는 평면을 준비 중이다.

또 GS건설은 하반기 '미사 자이'에 이어 내년 3월께 A1블록 555가구 2차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강동자이(2001년 분양), 하남자이(2004년 분양)에 이어 9년 만에 강동권에 자이 브랜드 1700여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다.

남두경 GS건설 상무는 "하남 미사강변도시는 한강, 미사리 조정경기장, 검단산 등에 인접한 자연친화적인 도시인 동시에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 서울 생활권이라는 인식이 강한 곳"이라며 "차별화된 평면과 단지 조경 등 우수한 상품성과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강동권의 새로운 랜드마크 단지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옥기자

kt금호렌터카, 성수기 프로모션

kt렌탈(대표 표현명)의 렌터카 브랜드인 kt금호렌터카는 업계 최초 차량 10만대 돌파를 기념해 10만명에게 지니 100회 음악 감상권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여름 성수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다음달 31일까지 전 지점에서 차량을 대여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음악 사이트 지니의 100회 음악감상권 10만장을 제공하며, 유가철이 시작되는 16일부터 이용고객 모두에게 큰 린백과 물티슈를 추가 증정한다. 또 제주 오토하우스에서는 론니플래닛 코리아와 함께 만든 제주 가이드북 'Jeju on the road'를 연말까지 제공한다.

kt금호렌터카는 단기렌터카 고객 수요가 증가하는 7, 8월을 맞아 이미 2000대의 신차를 추가로 구매했고, 성수기 중 1만 여대의 차량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5월 오픈한 제주 오토하우스는 여행객이 차량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차 약 500대를 증차해 제주지역 최대 규모인 1700여대를 운영한다.

/정시하기자 lenasi6@

"세대간 일자리 갈등 풀어봅시다"

전경련, 직업 분업화·임금체계 개편 주장

지난해 국회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한 채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세대 간 일자리 갈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일자리 세대갈등, 대안은 없는가'를 주제로 국민대통합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과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등 노동계 전문가 또 각 세대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직업 중 상당수가 세대별 분업화가 제대로 되지 못해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축구 선수가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로 분업화된 것처럼 직업도 연령과 세대별로 분업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부회장은 "미국의 직업 수는 약 3만 개, 일본은 2만 개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만 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근본적인 방안은 외국에는 있지만 우리나라에 없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라며 "제2의 바리스타, 푸드스타일리스트와 같은 새로운 직업이 늘어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포지엄 발제자로 나선 안주엽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년연장으로 기업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현행 연공급 임금체계를 능력과 직무위주 체제로 전환해 정년연장과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도 "정부가 정년연장을 통해 복지재정 부담을 기업의 고용부담으로 이전시켰다"며 "정부는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노사간 사회적 합의 도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세대간 일자리 갈등 여부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어졌다.

청년시사교양지 '바이트'의 이철훈 대표는 "일부 노조가 임금피크제는 반대하고 정년연장만 환영하는 등 청년 실업을 도외시한다"

사진 왼쪽부터 [illegible] 노년유니온 위원장, 이[illegible] 교수, 안주엽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박영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이철훈 청년시사교양지 바이트 대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전경련 제공

고 지적했고,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기업부터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은 "과거 보릿고개를 겪은 세대가 퇴직 후 연금수급 전까지 '시니어 보릿고개'를 다시 겪고 있다"며 다양한 시간 선택제 일자리 보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주엽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년층 고용이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른바 '세대 갈등론'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대한은퇴자협회의 주명룡 회장도 "세대간 일자리 경합이 아니라 젊은 세대가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한 미스매치의 결과일 뿐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 갈등 문제는 크지 않다"며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 대립'으로 규정 짓는 사회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두탁기자 kimdt@metroseoul.co.kr

구본무 회장 "내실 있는 성장 이끌어 내야"

"반드시 내실 있는 성장을 이끌어 달라."

구본무 LG 회장(사진)이 8일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7월 임원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구 회장은 이날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빠르게 성장하는 곳에서 차별화된 고객 가치로 시장을 선도하는 것"이라며 "경영진이 앞장서 주력해야 할 분야와 시장을 제대로 선택하고 선도 상품을 만들어 고객이 찾도록 하는데 자원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내실없는 성장에 매달리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고 집요하게 실행해 반드시 '내실 있는 성장'을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

구 회장은 여름철을 맞아 "자연재해가 많은 시기인 만큼 사업장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LG 관계자는 "성장성이 높은 시장에서 차별적 고객가치를 제공하는 선도 상품으로 매출과 동시에 수익성 측면에서 성과를 창출하는 '내실 있는 성장'을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날 임원세미나에는 강유식 LG경영개발원 부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등 최고경영진과 임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임원세미나에서는 경영진의 마인드 컨트롤이 본인은 물론 구성원들의 참의성과 잠재능력을 발휘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양창순 정신건강의학과 박사의 '성공하는 리더의 마음경영' 특강도 진행됐다. /장세규기자

효성, 베트남 스판덱스 공장 증설

600억원 투자 1만톤 생산… 시장지배력 확대

효성이 베트남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 기존의 스판덱스 공장을 증설해 시장지배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효성은 오는 4분기까지 6000만 달러(600여 억원)를 투자해 베트남 스판덱스 공장 생산량을 1만톤 늘리는 증설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5만톤 규모의 '크레오라' 를 생산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조현준 섬유PG장은 "세계 시장 1위를 지키기 위해 미국·중국·서유럽 시장뿐 아니라 인도·인도네시아·베트남·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시장과 동유럽시장·남미시장까지 성장세가 높은 시장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며 "섬유 부문 성장을 이끄는 핵심 사업인 스판덱스의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공급 능력을 늘리는 한편 새로운 고객의 요구에 최적화된 제품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효성은 지난해 말부터 베트남 호치민시 인근 연짝 공단에 있는 스판덱스 공장에서 1만톤 규모 증설을 개시해 올해 7월말부터 순차적으로 가동에 들어간다.

3분기까지 증설을 완료해 아시아 시장에서 급속히 늘고 있는 스판덱스 수요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증설로 글로벌 넘버1인 효성의 스판덱스 '크레오라'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32%로 확대된다. 이는 세계 71억 인구가 입는 스판덱스 원사가 들어간 옷 3벌 중 한 벌은 효성 '크레오라'가 포함된다는 의미다. /장세규기자 kss@

여성 경영성과 향상 도움… 채용확대는 "글쎄"

대한상의, 300개 기업 대상 조사 결과

대부분의 국내 기업은 여성인력 활용이 경영성과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반면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 문제로 '여성인력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기업은 많지 않았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최근 3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에서 여성인력 활용이 경영성과 향상에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67.2%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승진에서도 남녀간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많았다. 남녀 간 승진 차이 여부를 묻는 질문에 '차이가 없다'는 기업이 69.3%로 '차이가 있다'(30.7%)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남녀 간 승진에 차이가 있다고 답한 기업은 이유로 '낮은 공헌도'(36.1%), '업무수행능력 부족'(24.4%), '리더십 부족'(21.8%) 등을 꼽았다. '관리자의 편견'(6.7%)이나 '남성중심적 조직문화'(3.4%)를 꼽은 기업은 소수에 그쳤다.

기업의 여성인력 활용은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입직원 채용시 남녀 간 성비 집계결과 75 대 25로 남성이 크게 앞섰다.

향후 여성인력 채용규모에 대해서도 84.5%의 기업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여성 채용을 늘리겠다'는 기업은 15.5%에 불과했다. /김태균기자

효성 직원이 베트남 호치민시 인근 연짝 공단에 있는 스판덱스 공장에서 세계시장 1위를 달리고 있는 크레오라의 품질검사를 하고 있다. /효성 제공

게임 개발자에 최적 환경 "일할 맛나네~"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인큐베이션실'
마라톤 풀코스·히말라야 트레킹도 지원
매출 72% 해외서… '글로벌 강자' 우뚝

이국명 기자의 알짜기업 탐방
⑯ 넥슨

"넥슨에는 재입사자가 유난히 많습니다. 한번 회사를 떠나보면 넥슨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느끼기 때문 아닐까요. 신입사원보다 경력사원이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이유도 '게임 개발하기 좋은 회사'라는 기업 분위기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임현준 넥슨 인재선발팀 팀장은 회사에 대한 자랑이 끊이질 않는다. 정말 좋은데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네'라는 모 회사의 광고 문구처럼 한두마디 말로는 넥슨을 표현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넥슨 청청대의 네 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트레킹 모습

◆원하는 프로젝트 마음껏 도전

실제로 넥슨은 국내 다른 기업에서 찾아보기 힘든 다양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 지난 4월에 도입한 인큐베이션실이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하고 싶은 직원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소한의 기준만 통과하면 6개월 동안 인큐베이션실로 소속을 옮겨 하고 싶은 프로젝트에만 집중할 수 있다.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화가 결정되면 정식 팀으로 독립할 수 있고 설사 성과를 내지 못해도 또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사내채용도 넥슨 만의 기업문화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새로운 프로젝트 팀장은 내부 직원을 상대로 구인을 하고 직원들도 원하는 프로젝트에 지원할 수 있다. 한꺼번에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회사를 옮기지 않고도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셈이다.

369 재충전 휴가 제도도 다른 기업 직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근속 3년, 6년, 9년이 되면 최대 30일의 휴가와 함께 지원금까지 제공해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다.

이밖에 어린이집, 피트니스센터, 식사·휴식·수면 공간, 옥상정원 등 사내 시설도 국내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절고 수평적 기업문화

교육제도도 남다르다. 어학, 리더십 등은 물론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는 '넥슨포럼'을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재즈 밴드, 디제잉, 중국 고전 철학 등 일반 학원에서 배우기 힘든 강좌에서부터 자전거 국토종단, 마라톤 풀코스 완주,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트레킹 등 모험도 지원한다.

기업문화도 젊고 수평적이다. 1560여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평균 근속년수는 3.7년이다. 짧아야 2년에 불과한 게임업계 특성을 감안할 때 상당히 긴 편이다. 특히 신입사원 3년 이내 퇴사율이 10% 미만이다. 이는 1년내 퇴사율이 11.3%(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달하는 대기업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무엇보다 넥슨의 매력은 업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안정성이다. 1994년 설립이후 '카트라이더' '메이플스토리' '마비노기' '서든어택' '던전앤파이터' '카운터스트라이크 온라인' '피파 온라인 3' 등 66여 게임을 선보여 전 세계 이용자가 14억명에 달한다. 매출은 1조 6386억 원으로 국내 게임기업 1위. 특히 매출의 72%를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넥슨 일본법인을 통해 도쿄증권거래소 1부에 상장하면서 '글로벌 강자'로 인정받고 있다.

넥슨 직원들이 사내 작은 휴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50~100명 경력 공채 진행중

넥슨은 게임업계의 숨은 고수를 찾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경력공채 직원을 모집한다. 게임프로그래밍, 기획, 아트, 사업 등 유관 경력 1년 이상 경험자면 지원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50~100명이지만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다. 입사전형은 서류 전형, 과제 심사,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넥슨 컴퍼니 채용 홈페이지(career.nex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스펙 대신 열정·실력만 챙겨 오세요"

이런 인재를 원한다

"넥슨에선 시키기 할 일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시키는 일만 하는 대기업 마인드에 젖어 있는 사람은 적응하기 힘들 것입니다."

임현준(사진) 넥슨 인재선발팀장은 능동적이고 변화를 즐기는 게임계의 열정꾼들이 많이 지원해 줄 바란다고 말했다.

▶채용제도가 매우 독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넥슨은 창업 초기부터 스펙 빼고 채용정책을 도입해 출신 학교, 전공, 영어 점수 등은 일체 보지 않는다. 게임에 대한 열정과 그 열정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실력만 증명하면 된다. 실제로 게임 개발 프로그래머로 재직하는 직원들 중에는 프로그래밍 테스트를 통과한 실용음악과, 법학과, 철학과, 경영학과, 화학과, 물리학과 등의 출신이 많다.

▶합격 비법이 있다면

▶▶채용홈페이지 공고에 들어 있는 우대사항을 반드시 파악하는 것이 좋다. 밝은 성격 소유자,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 등 각 직군에서 원하는 성격이나 성향까지 상세히 알려주기 때문이다. 미리 파악하고 지원하면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신입 공채 계획은

▶▶올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 넥슨에 입사하길 원하는 대학생이라면 글로벌 게임컨 개발자 컨퍼런스(NDC) 등 다양한 인재발굴프로그램에 참여하길 권한다. 넥슨의 회사 분위기를 익힐 수 있는 것은 물론 게임 전문가로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국명기자

'와인의 향'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프랑스 농어식품산림부 주최, 소펙사 코리아 주관으로 열린 '제13회 한국 소믈리에 대회'에서 결선 진출자들이 와인 서승 자원을 연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은 구인난 구직자는 구직난

고용불균형 갈수록 심각

취업시장의 미스매칭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를 뽑기 힘들다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한편에서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구직자들의 하소연이 깊어지고 있다.

8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올 상반기 채용을 계획했던 기업 173개사를 조사한 결과 53.2%가 채용과정에서 차질을 빚었다고 답했다. 신입(67.4%)보다 경력(73.9%)을 뽑을 때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이 가장 어려웠던 직무는 제조·생산(26.1%)에 가장 많았다. 서비스(18.5%), 영업/영업관리(13%), '연구개발'(8.7%), '재무/회계'(5.4%), 'IT/정보통신'(4.4%) 등이 뒤를 이었다.

채용에 어려움을 겪은 이유로는 "조건에 부합하는 지원자 부족(64.1%, 복수응답)"을 첫 번째로 꼽았다. "전형 중 중도 포기자 발생(35.9%)", "전체 지원자수 감소(25.3%)", "채용 전문성 확보 어려움(7.6%)"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한편 신입 구직자 501명을 대상으로 체감하는 올 상반기 취업시장 '구직난'을 물어본 결과 무려 86%가 '구직난이 심해졌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서류합격과 면접경쟁이 치열해져서"(49.9%·복수응답)를 첫번째로 꼽았다. "채용공고가 많지 않아서"(41.4%), "기업별 채용규모가 적어서"(35.1%), "지원 자격 조건이 높아져서"(32.8%), "지원할 만한 기업이 별로 없어서"(30.1%) 등이 뒤를 이었다.

구직난이 심해지면서 38%(복수응답)는 "희망연봉 등 눈높이를 낮췄다"고 밝혔다. "직무, 기업 등 목표와 관계 없이 지원했다"(36.6%), "입사지원 횟수가 늘었다"(28.9%), "자격증 등 스펙을 높이는데 집중했다"(26.4%), "계약직 등 지원범위를 확대했다"(26.2%)가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국명기자

허리·목 디스크는 명품 치료인 고주파로 10분이면 끝!

고주파 디스크 시술은 급성 또는 중기 이상 디스크 환자에게, 꼬리뼈 레이저 내시경 시술은 말기 디스크·협착증 및 고령의 노인에게 적합

직장인 박모(42)씨는 평소 허리가 불편해 가까운 동네병원에서 신경치료 또는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다리에 통증이 생기면서 요통 및 우측 골반 등통 심한 하지 당김이 발생해 유명한 척추전문병원을 방문했다.

요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후 제4~5 요추 간 추간판 탈기를 진단받은 박씨는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따라 고주파 열 치료술(고주파 수핵 감압술)을 시술받았다.

하지만 시술 후 통증은 없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증상이 악화돼 강서조이스병원(강남조이스병원 강서점)을 내원했다. 담당 주치의인 최현우 강서조이스병원 원장은 이전 병원에서 말기 디스크를 치료할 수 없는 고주파 열 치료술을 받아 증상이 심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 말기로 인해 디스크가 터졌으며 터진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고 있다고 박씨의 상태를 진단했다.

최 원장은 이후 국소마취하에서 고주파 내시경 디스크 치료술을 통해 박씨를 치료했다. 이 시술은 직경이 작은 관을 이용해 내시경을 병변 부위에 집어 넣은 후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자리로 집어넣고 고주파로 디스크를 수축 응고시키는 한편 터진 디스크에는 신경 주사 약물을 넣어 질환을 치료하는 시술이다.

유명 연예인들 및 세계인들이 강남조이스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이름이 알려진 이 치료법은 기존의 일반 고주파 디스크 열치료와는 다른 진화된 방법으로 일반적인 디스크 질환뿐만 아니라 재발되거나 터진 디스크 또는 퇴행성 협착증까지 치료가 가능하다.

최현우(오른쪽) 강서조이스병원 원장과 가수 휘성 /강서조이스병원 제공

◆환자에게 맞는 방법 통해 질환 근본적으로 치료

이와 함께 강서조이스병원은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시행하고 있다. 이 치료는 국소마취 후 1 5㎜ 굵기의 관을 통해 내시경으로 환부를 관찰하며 좁아진 척추관을 넓히고 돌출된 디스크 부위에 레이저를 쏴 염증 부위를 제거하는 시술이다. 신경근 유착까지 제거할 수 있으며 디스크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특징이다. 또 흉터도 거의 남지 않고 시술 시간도 짧아 시술 후 바로 퇴원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특히 이 시술은 고주파 열 치료나 고주파 특수 내시경으로 치료가 어려운 오래된 퇴행성 말기 디스크, 협착이 동반된 디스크, 수술이 어려운 고혈압·당뇨병 등 성인병을 앓고 있는 환자와 고령자들에게 적합하다.

더욱이 강서조이스병원은 내원 환자의 증상·질환에 따라 척추 전문의가 먼저 진료를 한 후 치료를 실시한다. 초·중기 디스크 질환일 경우에는 아픈 부위에 간단히 신경 주사 치료를 시행하고 증상이 심하거나 중기 이상의 디스크 환자에게는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을 이용한다.

아울러 병원은 환자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환자 1명을 척추 전문의, 도수치료사, 운동치료사 및 물리치료사 4명이 전담하는 통합 진단·치료 시스템을 구축해 척추 치료를 선진·체계화 했다.

문의 02)2698-2200·1800-3800

/황재용기자

복부 수술, 복강경으로 흉터 없이…

팽장·담석증 등 복부 질환 수술 때 좋아

여름철에는 무더위로 인한 차가운 음식과 과식, 음주 등이 위장에 부담을 줘 맹장염 등의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다. 또 살을 빼기 위한 지나친 저지방 음식 섭취나 다이어트 등은 담석증을 유발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의 치료를 위해서는 복부 흉터가 남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용을 고려한다면 흉터를 최소화하는 수술법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과거 맹장염, 담석증에 걸리면 배를 열고 수술을 했다. 배를 절개하기 때문에 출혈과 통증이 많았고 수술 후에도 흉터가 남은 뿐 아니라 감염의 위험이 높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복강경수술'이 도입됐다.

복강경수술은 최소 침습수술 중 하나로 복부에 0.5~1㎝ 지름의 작은 구멍을 뚫고 그 공간에 공기를 주입해 공간을 확보한 후 특수 비디오카메라인 복강경과 특수 수술도구를 이용해 수술하는 방법이다.

전통적인 개복수술과 비교해 절개 부위가 작아 미용적으로도 보기 좋고 수술 후 통증이 훨씬 준 것이 장점이다. 또 회복 속도가 빨라 수술 후 3일 정도면 퇴원이 가능하며 특히 전문의가 카메라를 통해 환부를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다.

더욱이 단 한 개의 구멍을 뚫고 수술하는 '단일공복강경수술'이 등장해 인기를 얻고 있다.

보통 복강경수술을 할 때는 복에 3~4개의 구멍을 뚫고 진행한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하나의 구멍을 통해 수술하는 단일공복강경수술이 가능해진 것이다.

배꼽 부위에 단 한 곳에만 구멍이 생겨 수술 흔적이 거의 남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여름철 비키니 수영복을 입는 데 지장을 주지 않기에 여성 환자와 젊은 연령층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복강경수술보다 근육의 손상과 통증도 덜하다. 게다가 일상생활로의 복귀도 빠르며 수술 부위를 통한 탈장과 출혈 등이 발생할 우려도 줄어들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비가 오려나? 관절이 쑤시네"

고온 다습한 장마철, 관절염 환자에겐 고통의 계절

어르신들은 관절통으로 궂은 날씨를 예측한다. 특히 비소식이 잦은 장마철이면 이런 예측이 더욱 흔하게 나타난다.

과학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장마철에는 관절 내·외부의 기압 차이가 생겨 관절 주변의 신경조직이 자극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관절이 부어오르면서 통증이 심해진다.

하지만 장마철 관절이 아프다고 해서 모두 같은 관절염은 아니다. 퇴행성관절염과 류마티스관절염은 관절에 통증이 나타나는 것은 같지만 구체적인 증상과 발생 원인, 진단법 등이 다르다.

온도에 민감해 주로 저녁이나 비가 오는 습한 날에 통증이 발생하는 퇴행성관절염은 관절 부위를 따뜻하게 찜질하면 통증이 가라 앉는다. 반면 류마티스관절염은 염증 반응에 의한 열이 동반돼 냉찜질을 해야 한다.

또 퇴행성관절염은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연골이 닳는 퇴행성 변화지만 류마티스관절염은 면역체계의 이상으로 생기는 자가면역질환이다. 이에 따라 퇴행성관절염은 주로 고 연령층의 무릎이나 큰 관절에서 발생한다. 류마티스관절염 증상은 주로 손가락이나 손목, 팔꿈치 등 작은 관절에서 열감과 함께 나타난다.

두 질환의 치료법 역시 차이가 있다. 류마티스관절염의 진단은 채혈을 통해 이뤄지며 면역력을 정상화시키는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퇴행성관절염은 진찰과 방사선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손상 초기에는 약물이나 재활치료를 한다.

/정영일기자

와인 칵테일로 폼나는 여름 즐기세요

제철 과일·콜라·아이스크림 등 활용해 즐기는 레시피

올 여름 믹싱주가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던 일반적인 폭탄주 형태에서 벗어나고 있다. 다양한 주류를 베이스로 한 칵테일을 즐기는 사람이 눈에 띄게 늘었다. 주로 보드카·럼·위스키 등을 베이스로 활용하지만, 와인도 칵테일의 훌륭한 베이스가 될 수 있다.

◆여름 제철 과일 활용

오렌지·복숭아·앵두 등은 별다른 조리 없이 먹어도 맛있는 여름철 제철 과일이다. 이들과 와인이 만나면 젊은 풍미가 더해져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다.

과일의 상큼함을 함께 느끼기에는 상그리아 칵테일이 제격이다. 먼저 큰 유리 저그에 상그리아 와인 '바르데 오레 상그리아 루즈' 3분의 2병을 담은 후 소다수(혹은 사이다) 2분의 1병을 담는다. 이때 슬라이스한 오렌지(1개)와 딸기(2분의 1컵), 깍둑썰기한 복숭아(1개) 등 기호에 따른 제철 과일을 더하면 완성이다.

이탈리아 화가 벨리니의 이름에서 유래된 '벨리니'는 복숭아를 이용해 즐길 수 있는 여름 와인 칵테일이다. 드라이한 스파클링 와인에 복숭아 과즙과 넥타를 섞는 것으로 레시피도 간단하다. 글라스에 껍질을 제거한 백도를 주스 형태로 만든 복숭아 과즙과 스파클링 와인 '르 프롱드 모스카토'를 1대2의 비율로 넣은 다음 가볍게 저어주면 된다.

◆톡 와인 칵테일 레시피

무더운 여름철, 잠 못 이룰 때 혹은 가벼운 홈 파티를 열 때 제격인 홈 와인 칵테일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사용해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이 포인트다.

스페인식 와인 칵테일인 '칼리모초'는 레드 와인과 콜라를 1대1 비율로 혼합하고 얼음을 넣어 만든 와인 칵테일로 제조법이 매우 간단해 홈 칵테일로 제격이다. 흔히 와인에 얼음을 넣은 경우 특유의 맛을 느낄 수 없어 꺼려하지만 '칼리 모초'의 경우 '온더락'은 시도해보자. 의외로 과실 맛이 뚜렷하게 살아나 더욱 시원하고 풍부한 맛을 즐길 수 있다. 추천 와인으로는 과일 향이 풍부하며 부담 없이 마시기 적당한 '신타리타 120 메를로'가 좋다.

더운 여름철, 달콤함과 시원함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레시피 '멜로우테일 와이스크림'도 있다. 와이스크림은 와인과 아이스크림의 합성어. 차갑게 칠링한 로제 모스카토 품종의 와인과 아이스크림을 혼합하는 와인 칵테일이다. 유리잔에 '옐로우테일 핑크 모스카토'를 3분의 1정도 채운 후 떠먹는 아이스크림을 2스쿱 정도 넣고 잘 저으면 완성된다.

◆눈 길 즐거운 '와인 칵테일' 레시피

일반적인 칵테일 레시피는 먹는 즐거움을 제공하지만 여기에 보기에도 세련된 느낌을 주는 칵테일은 보는 즐거움까지 더한다.

스파클링 와인에 오렌지 주스를 첨가해 만든 '미모사'는 빛깔이 미모사 꽃과 유사해 이름 붙여진 칵테일이다. 와인 글라스에 차갑게 칠링한 스파클링 와인과 오렌지 주스를 1대1 비율로 따르고 가볍게 저으면 완성된다.

두 개로 나뉜 층의 색깔 조화가 아름다운 여성용 칵테일인 '아메리카 레오네이드'도 있다. 새콤달콤한 맛이 강하며 도수가 낮아 술이 약한 사람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글라스에 레몬주스(40㎖)와 설탕(3티스푼)을 넣어 잘 녹인 후 얼음과 냉수를 넣는다. 그 위에 차갑게 식힌 레드 와인을 살짝 띄워 색이 구분되는 2개의 층이 만들어 지도록 한다. 이때 설탕을 많이 넣으면 와인이 잘 뜬다.

/장병일기자 jcmay@metroseoul.co.kr

강원도의 힘! '산너머남촌'

강원도 토속 한정식 '산너머남촌'(대표 박종철)이 고품질 국내 농산물의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들과 함께 동행의 삶을 걷기 위해 강원도 토속 식재료를 사용하는 상생 경영으로 화제다.

이 음식점은 강원도 관내 농민들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지역 특산물을 메뉴화해 자연의 맛을 토속 한정식으로 담아내고 있다. 평창 감자를 이용한 감자옹심이부터 영월의 곤드레로 지은 곤드레밥을 포함해 용대리 황태, 양구 펀치볼 시래기, 홍천강 수라쌀, 양양쑥 등의 신선한 재료들을 통해 강원도의 참은 맛을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다.

현지 농가와 직거래를 통한 자연 먹거리로 식품에 대한 안정성을 강화시켜 신뢰감 있는 메뉴들을 선보이고 있다.

메뉴 가짓수에 따라 9가지 강원도 토속한정식은 9900원에 맛볼 수 있으며 12가지로 이뤄진 동강정식은 1만3900원으로 맛과 건강을 겸한 푸드테라피가 가능하다. /김민지기자

하루 한 개 요거트로 건강을~ 풀무원다논(대표 오진은)은 '건강한 선택, 요거트 하루 한 개(One Yogurt a Day)' 캠페인을 8일 홍콜렉스 월드컵점에서 열었다. 이 캠페인은 다논이 전세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캠페인의 하나다. 하루 한 번 요거트를 섭취해 칼슘·단백질·비타민 등 건강을 위한 필수영양소를 보다 간편하고 맛있게 섭취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풀무원다논 제공

주방 후드, 온도·습도 낮춰

하츠는 조리 중 후드 사용에 따른 주방 온도와 습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 후드를 사용할 경우 주방 온도 및 습도 상승률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하츠연구소에 따르면 환경적 조건이 동일한 주방에서 하츠의 '스마트 후드'를 켜고 조리를 했을 시 10분 경과 후 실내 온도는 0.7℃ 상승하는 데 그친 반면 후드를 끄고 조리를 했을 땐 실내 온도가 1.8℃ 상승했다.

습도 역시 후드를 작동시켜 10분간 조리를 했을 땐 56.9%로 측정돼 0.5% 오른 수준이었으나 후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68.3%의 습도를 기록해 12.2%나 증가했다.

/장병일기자

"덧입을수록 시원하다!"

타올·헬멧 모자 등 시원한 스포츠용품 눈길

본격적인 무더위에 스포츠 및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쿨링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안전하고 시원하게 여름을 이길 수 있게 제품에 쿨링 기술과 소재를 접목시켜 열띤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 올해는 장갑·스포츠 타올 등 덧입을수록 시원한 기능성 아이템들을 앞세워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 잡고 있다.

스포츠타올은 단순히 땀이나 물기를 닦아내는 용도로만 생각해선 안 된다. 최근 체온상승을 막아주는 기능성 타올이 출시되면서 그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다. 미국 스포츠케어 브랜드 미션 애슬레틱케어의 '인듀라쿨 인스턴트 쿨링 타올'은 땀을 빠르게 흡수해 말리는 '인듀라쿨 테크놀로지'를 적용한 전문 스포츠 타올이다. 야외활동 시 타올을 물에 적셔 털어낸 후 목이나 팔·머리 등에 얹으면 급격히 올라간 체온을 낮출 수 있다.

야구·사이클 등을 할 때는 머리 보호와 안전을 위해 헬멧을 반드시 써야 한다. 하지만 무더위 속에 장시간 착용할 경우 통풍이 되지 않아 땀이 차기 마련이다. 미션 애슬레틱케어의 '인듀라쿨 헬멧 라이너'는 열기와 땀을 밖으로 빼내고 땀을 냉매로 쿨링 효과를 제공, 헬멧 안을 보송보송하고 시원한 상태로 유지시켜준다.

스포츠 활동 시 땀으로 끈적한 손이 고민이라면 장갑을 착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레드페이스 'UV 쿨 쉬워 마프 글러브'는 자외선 차단 소재와 흡습 속건 기능의 아덱스 쿨 앤 드라이 소재를 사용해 땀을 빠르게 말려준다.

/이국현기자

새로 나온 책

취미·실용
살림9단의 만물상
TV조선 <살림9단의 만물상> 제작팀/허밍버드

살림 고수들의 생활 정보부터 건강 비법까지 알려주는 정보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살림9단의 만물상 중에서도 시청자들에게 가장 큰 호응을 얻었던 방송을 엄선해 실었다. 건강하게 사는 법, 좋은 음식 만드는 법, 돈 아끼는 법, 생활에 꼭 필요한 유용한 살림법 등 실생활에 응용 가능한 노하우들과 알짜 정보들을 소개한다.

취업
대리운전, 초보자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는 실전 노하우
전황도/느낌이있는책

저자가 3년간 직접 발로 뛰면서 얻은 현장의 노하우를 모았다. 첫 오더 장소부터 이동, 주행요령, 주차, 귀가방법, 수입까지. 대리기사의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과정을 정리해 어제 막 업계에 뛰어든 사람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한다. 또 고수들이 시간·지역을 어떻게 공략해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는지 그들의 차별화된 전략과 함께 저자 본인의 현장 경험담을 얘기한다.

경제
만만디의 중국고수들과 묵을 준비는 했는가
이병우/컨포드맥스

저자는 중국 현지에서 10년간 발로 뛰고 몸으로 체득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관시의 실체와 만만디의 본질을 파헤치고 있다. 또 13억 인구 중 성공한 중국인들의 지략과 노하우를 통해 한국인이 중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한 사람의 아름다운 이야기

평범하지만 눈물겨운 우리의 인생

한 남자가 한강 다리 위에 서있다. 금방이라도 다리 아래로 몸을 던질 것만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투명인간이다. 그리고 마침 그 곁을 지나던 또 다른 투명인간이 그를 알아본다. 그렇게 한강 다리 위 투명인간은 또 다른 투명인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낸다.

이들의 대화로 시작되는 이야기는 투명인간이라 눈에 보이지 않아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묵묵히 우리 곁을 지켜온 그 남자, 김만수의 사연을 담고 있다. 하지만 만수의 사연은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사연이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누이와 형제, 그리고 우리의 인생사인 것이다.

투명인간
성석제/창비

두메산골 개운리에서 3남 3녀 중 넷째로 태어나 볼품 없는 외모에 허약한 체질, 순박한 성격을 지닌 그가 우리 자신이고, 그의 사연은 배고픔을 곱씹으며 성장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굴곡진 현대사의 흐름에 휩쓸려 비극을 만나지만 결국 나보다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장면 역시 전혀 낯설지 않다.

또 책에는 그의 가족과 친구, 동료 등 그를 둘러싼 수많은 인물들이 말하는 인간 김만수가 등장한다. 그들이 각자의 처지에서 각자의 시선으로 본 만수의 일면, 그들이 보고 겪은 각각의 장면들이 우리의 삶으로 재탄생되는 것이다.

누구나 힘들고 배고프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주위의 투명인간과 얘기를 나누는 것은 어떨까.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우수 출판콘텐츠 140편 선정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재호)은 2014년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선정작으로 "문명의 역사와 철학(이정우 외 길출판사)" 등 총 140편의 원고와 기획안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미 발간된 창작 출판콘텐츠를 발굴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고·기획안·1인출판사 등 3개 부문으로 분리 추진하던 것을 올해 통합하고 지원 편수를 73편에서 140편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진흥원은 설명했다.

올해에는 인문교양, 사회과학, 과학, 문학·아동의 5개 분야에서 총 2890편의 원고와 기획안이 접수됐다. 진흥원은 북 칼럼니스트, 작가, 교수, 학자 등 3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한국의 지역과 문화적 특성을 충실히 담은 응모작과 신인 저자 등을 우대해 심사했다고 전했다.

우응순 심위위원장 기획위원은 "특히 인문교양과 아동 분야의 응모작이 많았고 1인출판사의 우수한 작품이 다수 포함된 것에 주목했다"고 강조했다.

진흥원은 선정작을 출간할 출판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편당 상금 300만원과 출판제작지원금 700만원을 지원한다.

/김학철기자

'간행물 사재기'…신고 포상제 시행

문화체육관광부가 간행물에 대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사재기 행위 단속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간행물의 사재기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체부는 출판·유통계의 사재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재기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시행하며 동시에 정부의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우선 오는 29일부터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도입한 사재기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시행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사재기 행위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1건당 2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 출판 유통계의 간행물 사재기에 대한 처벌 역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된다.

이 외에 문체부 장관은 출판사 및 유통 관련 사업자가 사재기에 의해 조작된 간행물 판매량을 발표할 경우 그 발표에 사용된 각종 알림자료 및 이 밖의 유사한 발표수단의 제거를 명령할 수 있다.

/장혜진기자 hlune@

책 속 한 컷 | 여행은 새로운 시야를 갖는 것이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여행의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야를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라오스의 산과 숲으로 둘러싸인 외딴 나무 꼭대기가 오두막에서 고즈넉이 바라보는 풍경은 아마도 여행객이 보지 못한 색다른 풍경일 것이다. 오두막의 삶, 울타리 밖으로 마주한 안개 낀 숲, 오묘한 빛깔의 석양, 그리고 그 곁에 찾아오는 인도적인 여유를 상상해본다. 그 고요와 적막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어느 특별한 한 달, 라오스'(이용서/넥서) 中 -

/장혜진기자 hlune@

"머슴 잘못 쓴 주인도 책임있다"

화제의 책

원로정치가의 쓴소리…국민도 정치가도 반성해야

잘못된 정치, 49%는 국민의 책임
오세응/기파랑

원로 정치가의 회고록이다. 민주화추진협의회 초대 회장을 지낸 뒤 제8대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발을 들인 저자는 책을 통해 40여 년의 정치생활을 회고하며 후배 정치인들과 우리 국민에게 살아있는 조언을 한다.

특히 이 책은 국민, 유권자에게 따끔한 충고로 다가온다. 오해의 소지가 있은 법한 책 제목은 우리나라의 선진화를 위해 유권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였다고 저자는 고백했다.

이 책은 과거 여러 정치인들이 펴냈던 자서전과는 사뭇 다르다. 책의 곳곳에서 실제 인물들을 상세히 거론하며 비판의 날을 세운 대목이 그렇다.

1부에서는 저자가 정치 생활 중 있었던 사건, 사고를 가감없이 기록했다. 저자는 9장 '검찰과의 악연'에서 수감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정황을 솔직하게 풀어내고 있다.

이 책의 백미는 정치발전을 위해 국민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밝힌 2부다. 좋은 정치의 기본이자 주인은 바로 유권자다. 저자는 국민이 주인이요, 정치인은 머슴이라 했다. 국회의 품위와 정치 수준은 국회의원이 아닌 유권자 스스로가 만들어 간다고 강조했다.

저자는 제15대까지 7선 국회의원으로 활약했다. 그동안 국제의원연맹 한국대표단 단장, 정무제1장관, 국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 위원장·통일외무위원회 위원장, 한미의원외교협의회 회장 및 제15대 국회부의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미국 이예라칸대학교 석좌교수와 지방자치제도개선모임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김학철기자 kimc0104@

metro entertainment

"작품 선택? 재미 있으면 출연해요"

영화 '좋은 친구들' 주지훈

주지훈(32)은 짙은 눈꺼풀과 큰 키, 마른 몸매를 가진 배우였다. 영화 '좋은 친구들'에서 보험 설계사 인철을 연기하기 위해 10kg 몸을 불렸다. 조금 더 현실적인 외모가 된 그는 "예전엔 이런 것도 어색해서 못했는데 이제는 뭐"라며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했다.

◆ "여성 관객도 공감할 수 있어요"

영화는 세 친구 현태(지성)·인철(주지훈)·민수(이광수)가 화재사건으로 서로를 의심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주지훈은 갈등을 만든 핵심 인물로 출연했다. 우정과 자신의 생존 사이에서 복잡적인 감정을 연기했다.

"인철 캐릭터는 희로애락을 가감 없이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애드립이 많았지만 편집된 것도 상당했죠. 그것만 모아놓아도 영화 한 편이 될 거예요. 애드립도 대본과 캐릭터에 충실해야 나오는 것이니 연기에만 집중했어요."

인철은 욕을 입에 달고 산다.

"그의 욕은 정 이죠. 남자들 대부분이 그래요. 고등학생 때까지 조부모님과 함께 살아서 욕에 굉장히 익숙해요. 지적하면 안 되긴 하죠."

'좋은 친구들'은 누아르 같지 않은 누아르 장르다.

"드라마에 가까운 누아르죠. 사건 중심 감정을 강요하는 영화가 아니거든요. 물론 불법도박장 화재 사건이라는 큰 틀은 있지만 이 작품의 매력은 타인과 교류할 때의 감정을 잘 그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관객에게 '당신은 좋은 사람인가? 좋은 친구인가?'라는 물음을 던져요. 관객마다 느끼는 게 다를 겁니다. 세 남자의 우정을 보여주지만 여성 관객도 공감할 수 있다고 봐요. 인간 관계거든요. 굳이 친구가 아니더라도 직장 동료, 상사가 사소한 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미울 때 있지 않나요? 여성관객이 많이 들어야 할 텐데요. (웃음)"

◆ 주지훈의 '좋은 친구들'

주지훈은 "남현이 있죠"라고 현태와 민수 같이 오랜 기간 우정을 나눈 친구들을 이야기했다.

"초등학생 때부터 함께한 친구도 있고 세네 명은 7~8년 됐네요. 불과 며칠 전에도 4년 전 싸웠던 친구에게 생트집 들었어요. 영화 촬영이 끝난 후라 제가 감성에 젖어있어 다행이었죠. (웃음) 그 친구는 분노를 다 스리지 못했고 제가 잘 타일렀습니다. 그러면 또 아무렇지 않게 풀려요. 30대가 되니 친구들도 많이 변하더라고요. 같이 살다시피 했는데 취업하고 결혼하면서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순리인데 속상하더라고요."

연예인 친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김재욱·류덕환·이준기와 친해요. 특히 이준기와는 '좋은 친구들' 촬영 중간에는 연락했는데 그 친구가 드라마 '조선총잡이'를 시작해서 엄청 바빠졌죠."

또 다른 친구는 한편 가인이다.

"굳게 연애를 후회하지 않아요. 인생 자체를 원래 그렇게 살고 있어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SNS도 안 하죠. 공개 연애도 제가 원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사진이 찍혔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8년 동안 주지훈을 응원한 팬들은 가족 같다.

"확실하고 솔직한 성격이 좋다고 해요. 제가 팬에게 줄 수 있는 건 좋은 연기뿐이죠. 8년 정도된 팬들은 제 마음을 다 알아요. 예를 들어 신성관이나 일반인이 저를 보고 흥분해서 만지려고 하면 오래된 팬이 다 막아줘요. 호흡이 정말 잘 맞죠. 팬이 예의가 바라요."

◆ '궁' 빼고는 다 망했어요

주지훈은 모델로 활동하다 2004년 박일서 트 '압구정 종갓집'에서 배우로 데뷔했다. 2006년 MBC 드라마 '궁'으로 주목 받았다. 이후 영화와 드라마에서 활약했지만 눈에 띄는 작품이 없다는 평가다.

"작품을 선택할 때 재미있으면 출연해요. 그리고 말하면 '나만 재미 있었나?'라고 할 뿐이죠. 대중의 다양한 취향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또 드라마 '마왕'과 영화 '서양골동양과자점 앤티크'는 망하지 않았어요. 시청률과 흥행에 비해 작품은 호평 받았거든요."

2007년 '돈주앙'으로 뮤지컬에도 도전했다.

"뮤지컬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욕 안 먹으려고 노래 연습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뮤지컬 배우가 노래와 연기 둘 다 잘하면 좋죠. 그런데 감독이 원하는 목소리 연기가 있기 때문에 노래 잘하는 가수도 또 연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기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만의 철학이죠."

/전효진기자 jeonhj@metroseoul.co.kr

사진/쿠(3)주)아로드웨이필 디자인/최송지

세 남자 우정 여성 관객도 공감할 것 · 뮤지컬 노래 연습 계속한다

여성미 가득 품고 온 시크릿

다음달 새앨범 … 씨스타·걸스데이와 경쟁

걸그룹 시크릿(사진)이 올 여름 무대로 다시 돌아오며 이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8일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시크릿은 다음달 컴백을 목표로 앨범 작업에 한창이다. 지난해 12월 러블리한 윈터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아이 두 아이 두' 이후 약 8개월 만에 4명의 멤버가 뭉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시크릿의 다섯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은 시크릿 고유의 여성미를 엿볼 수 있는 중독성 강한 곡이다.

소속사 관계자는 "상큼하고 발랄한 이미지는 물론 글래머러스하고 관능적인 콘셉트까지 가능한 '하이브리드 걸그룹' 시크릿만의 차별화된 매력으로 승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크릿은 그간 멤버별로 예능, 솔로 앨범, 드라마 등을 넘나들며 활약했다.

전효성은 첫 솔로곡 '굿나잇 키스'를 발표했으며 OCN 드라마 '처용'에 이어 최근 KBS1 '고양이는 있다'에 출연 중이다. 한선화는 tvN '연애 말고 결혼'에서 한수리 역할을 맡아 열연을 펼치고 있다. 송지은은 OST와 솔로앨범으로 보컬 매력을 발산했고, 징거나는 래퍼로서의 내실을 공고히 다졌다.

걸그룹 에프엑스의 컴백을 시작으로 씨스타·걸스데이가 컴백을 알리며 올 여름 걸그룹 대전이 예고된 상황이다. 시크릿도 8월 걸그룹 대전에 출사표를 내면서 관심이 주목된다.

/장혜승 기자

god '국민그룹' 명성 그대로

8집 음원차트 올킬+줄세우기… 공연 매진

12년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god(사진)는 강했다.

god이 데뷔 15주년 기념 앨범인 정규 8집 '챕터 8'은 음원이 공개되자마자 각종 음원 차트를 올킬했다. 8일 공개된 타이틀곡 '새터데이 나이트'는 발매 직후 멜론과 엠넷, 지니, 올레뮤직, 다음 뮤직, 네이버 뮤직, 소리바다, 벅스 뮤직 등 전 음원 사이트 실시간 차트 1위에 올랐다.

또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도 'god'와 'god 8집'이 검색어 차트 정상을 차지했다. 멜론 실시간 차트에서는 '새터데이 나이트' 1위를 비롯해 5+4+1+5=15, '보통날', '우리가 사는 이야기', '스마일', '노래 불러줘요', '님 좋아', '신사의 품격' 등 수록곡 대부분이 음원 차트 상위권에 랭킹되며 '차트 줄세우기'에 성공했다.

앨범 발표 전 공개됐던 '미운오리새끼'와 '하늘색 약속'으로 1위를 기록했던 god는 이번에도 식지 않은 저력을 과시했다.

이같은 인기 요인은 최근 가요계 트렌드에서 벗어나 god가 그동안 보여줬던 음악적 색깔을 그대로 담아냈다는 점이다. 'god스러운 음악'이라는 평을 받은 '미운오리새끼'처럼 '우리가 사는 이야기'에는 god 특유의 감성이 담겼다.

'새터데이 나이트'라는 제목은 이들의 히트곡 '프라이데이 나이트'를 떠올리게 했다. '새터데이 나이트'와 '스탠드 업'은 업비트 느낌의 신나는 곡으로 담백하고 차분한 앞서 공개된 곡과는 또 다른 god의 매력을 끌어냈다.

또 팬에 대한 고마움도 담았다. god는 5집 이후 12년의 흥적 호흡현해 '하늘색 풍선'과는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하며 기존 '하늘색 풍선'을 잇는 따뜻한 팬송으로 팬들의 기다림에 화답했다.

지난 1일 공개된 '하늘색 약속'의 가사 중 "헤어질 때 우리 다시 만나자고 맹세했던 그 약속 지키려고 하늘색 풍선 기득했던 유 & 미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라는 가사는 오랜 시간 god의 목소리를 기다린 팬에 대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전국투어 콘서트 티켓도 매진 행렬을 기록하며 티켓 대란을 야기했다. 앞서 서울 콘서트를 수분 만에 매진시키고 전국투어 콘서트 1차 티켓 오픈 당시에도 예느 때보다 치열했던 티켓팅 전쟁을 치렀다.

한편 god는 이번 앨범과 관련해 총 4편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할 예정이다. 본편과 메이킹을 포함해 팬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줄 것으로 보인다. god는 오는 12~13일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god 15주년 리유니온 콘서트를 개최한다.

/장혜승 기자 yoa@metroseoul.co.kr

'원더케이' 유튜브 10억뷰 돌파

글로벌 콘텐츠 유통 브랜드로 각광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콘텐츠 유통 브랜드 원더케이(1theK)가 유튜브에 개설한 공식 채널로 조회수 10억뷰를 돌파했다.

최다 조회 콘텐츠는 그룹 뉴이스트의 케이스 뮤직비디오로 2700만 건 이상 조회됐다. 유럽지역에서 15% 가량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더케이의 대륙별 이용자 비중은 아시아가 가장 높고 북아메리카와 유럽,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이 뒤를 이었다.

10억뷰 돌파는 유튜브에 개설된 국내 전체 계정 중 5위에 해당하는 순위다. 로엔은 인기 원인으로 안무를 배워보는 '렛츠 댄스', 아티스트 키워드 인터뷰 '해시태그', 팬의 질문에 아티스트가 직접 답하는 '에스크 인 어 박스'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꼽았다.

원더케이는 글로벌 팬과의 접점을 확대해 나갈 뿐 아니라 K-콘텐츠의 세계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중국 최대 동영상 포털인 유쿠 투도우, 아이치이 등에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다.

원더케이는 11일까지 10억뷰 달성을 기념하고 이용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이벤트를 연다. 숫자 '1'을 의미하는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어 기념 영상에 댓글 형식으로 업로드하면 된다.

로엔의 김미연 팀장은 "원더케이는 K-팝 대표 브랜드로서 글로벌 팬이 만나고 싶어하는 K-팝 스타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이벤트를 통해 팬의 참여와 소통 기회를 주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순호 기자 suno@

지드래곤·소녀시대 미국서 합동무대

'케이콘 2014' K-팝 대표가수 참가

지드래곤(왼쪽 사진)·소녀시대(오른쪽)·아이유 등 정상급 아이돌 가수가 팝의 본고장에서 K-팝의 매력을 전한다.

엠넷 '엠카운트다운'은 다음달 9~1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메모리얼 스포츠 아레나에서 2회에 걸쳐 라이브 무대를 연다. 북미 최대 한류 컨벤션인 '케이콘 2014' 프로그램 중 하나다.

9일에는 지드래곤·아이유·빅스·틴탑·B1A4가 출연하고 10일에는 소녀시대·씨엔블루·방탄소년단·정준영이 무대에 오른다. 지난해 같은 곳에서 열린 '엠카운트다운'에는 1만1000여명의 한류 팬이 몰렸고, 올해는 2만여명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CJ E&M이 개최하는 '케이콘 2014'는 K-팝 콘서트는 물론 식품, 패션&뷰티, 자동차, IT 등 콘서트와 대규모 전시가 결합된 북미 최대 한류 행사다. 지난해 2만여명이 참가했으며 올해는 4만명 이상의 현지인들에게 음악, 영화, 드라마, 뷰티, 패션, 음식 등 한류 문화를 즐길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전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아이돌 가수의 라이브 무대는 이번 행사를 현지인들에게 알리는 데 큰 몫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유순호 기자

tvN 금토드라마
tvN
연애 말고 결혼
남 일인 듯 남 일 아닌
밀당 전문 로맨스
매주 [금,토] 저녁 8시 40분 tvN 방송

국경 없는 청년회-비정상회담 / 세바퀴에 출연한 파비앙 / 황금어장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사유리 / 일밤-진짜 사나이 '샘 해밍턴

외국인 예능 프로그램 "눈에 띄네…"

JTBC '비정상회담' MBC '진짜 사나이' 한국어 실력은 물론 재치 만발 호평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서 외국인들의 활약이 눈부시다.

7일 첫 선을 보인 JTBC '국경 없는 청년회-비정상회담'(이하 '비정상회담')은 11개국 출신의 외국인 청년들이 동참해 한국과 세계 청년들의 첨예한 관심 문제를 다루는 토크쇼다. 방송 직후 기욤 패트리 등 출연진들의 이름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

특히 '비정상회담'의 패널 중 한 명인 샘 오취리는 지난해 tvN '섬마을 쌤' 출연 이후 SBS '런닝맨', 올리브TV '마스터셰프 코리아3', MBC '무한도전' 등에 얼굴을 비치며 예능 대세 굳히기에 나섰다.

외국인들이 둘러앉아 입담을 뽐내는 '비정상회담'은 지난 2006~2010년에 방영한 KBS2 '미녀들의 수다'(이하 '미수다')와 비슷하다. MC 전현무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과거 '미수다'가 에피소드 중심이었다면 우리는 토론을 한다"며 "'미수다'보다 더 깊고 발전된 방송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수많은 외국 출신 방송인은 내층한 '미수다'에서 지금까지 왕성하게 활동 중인 사람은 후지타 사유리다. 사유리는 한국어를 단순히 구사하는 것을 넘어서 뛰어난 글솜씨로 수많은 SNS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다. 또 그만의 솔직하고 엉뚱한 매력으로 MBC '사유리의 식탐여행', JTBC '집안의 여왕' 등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현재 가장 잘 나가는 외국 방송인은 샘 해밍턴이다. KBS2 '개그콘서트'로 방송활동을 시작한 샘 해밍턴은 MBC '진짜 사나이'에서 '구멍병사'로 인기를 모으기 시작했다. 이후 그는 JTBC '마녀사냥'에서 신동엽, 성시경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은 생각과 언행으로 웃음을 짓게 했다.

샘 해밍턴과 함께 '진짜 사나이'에서 외국인 병사로 출연 중인 슈퍼주니어-M의 헨리 역시 만만치 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헨리는 태권도 승급심사에서 기합대신 영어로 "닉 슬라이스"를 외치는 등 사유리를 능가하는 엉뚱함과 박명식과 샘 해밍턴을 섞어 놓은 듯한 허술함으로 감초 역할을 해내고 있다. 헨리는 또 뛰어난 바이올린 연주 실력과 요리 솜씨로 반전 매력을 선보이며 누나 팬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짜여진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한다면 MBC '나 혼자 산다'의 파비앙은 꾸미지 않은 모습으로 한국 생활 적응기를 선보인다. 파비앙은 평소 치맥(치킨과 맥주)을 즐기고 월드컵 기간엔 모국 프랑스와 한국을 동시에 응원하는 등 남다른 한국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 한국 거주 외국인이 150만 명을 돌파했다는 안전행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주변 외국인 숫자가 늘어난 만큼 한국어를 잘 하는 외국인도 늘어난 셈이다. '비정상회담'의 전현무 말대로 한국어 하나만 잘 해선 시청자를 사로잡을 수 없다. 현재 활동 중인 외국인들은 로버트 할리와 이다 도시로 대표되는 1세대 외국 출신 방송인의 계보를 잇고 있다. 이들은 1세대 못지 않은 한국어 실력에 끼와 재능, 매력적인 외모까지 두루 갖추고 있어 당분간 꾸준한 사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지민기자 kimjkim@metroseoul.co.kr

마야 6년만에 정규앨범

가수 마야(사진)가 6년만에 정규 앨범으로 돌아온다.

지난 11월 종영한 드라마 '못난이 주의보' 이후로 브라운관에서 모습을 감춘 마야는 8개월 만에 이례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독특한 안내문을 올렸다. 이 안내문은 본인의 신곡 뮤직비디오에 참여할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모집한다는 내용이다.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페이스(보디) 페인팅, 뷰티, 판타지, 야광 메이크업 등의 메이크업 기술과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마야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참여 아티스트로 선정 시 마야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뮤직비디오 제작에 참여하게 되며, 많은 관계자와 관객이 참석하는 쇼케이스를 겸한 전시회에 자신의 작품을 걸게 되는 혜택이 있다.

마야 소속사 관계자는 "6년 만에 정규 음반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마야의 뮤직비디오를 신선하고 감각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콜라보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직 많은 부분을 공개할 수 없어 음반 출시 이전까지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혜운기자 [illegible]

신혜성·린 '원스 어게인' 재회

리메이크곡 '부엔까미노'로 입맞춤

신혜성(사진)과 린이 리메이크 프로젝트 '원스 어게인'의 첫 번째 곡인 '부엔까미노'로 재회한다. 2008년 프로젝트 앨범 '그 남자 그 여자 이야기' 이후 6년 만이다.

신혜성은 오는 15일 린과 부른 '부엔까미노'를 발표한다. 신혜성은 솔로 데뷔 10주년을 기념해 '원스 어게인'을 진행하며 올 연말까지 매월 한 곡씩 특별 아티스트와 함께 자신의 지난 명곡들을 리메이크해 발표할 예정이다.

'부엔까미노'는 2003년 신혜성의 첫 번째 솔로앨범 '오월지련'에 수록된 곡이다. 풍성한 오케스트레이션 보사노바 감성의 원곡을 피아노와 기타로 재해석했다. 코소리 짙은 린과 신혜성의 보컬이 애절한 분위기를 잘게 한다.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의 한 관계자는 "내년 솔로 데뷔 10주년을 앞둔 신혜성은 리메이크 프로젝트 '원스 어게인'으로 린과 음악적 호흡을 맞췄다"며 "오랫동안 함께 한 만큼 더 성숙해진 곡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혜성과 린은 2006년 에릭 주연의 옴니버스 드라마 '동화'의 수록곡 '사랑… 후에', '그 남자 그 여자 이야기'의 타이틀곡 '그대죠' 등을 함께 부르며 가장 잘 어울리는 남녀 아티스트 1순위로 꼽히고 있다.

/정효전기자 [illegible]

'고교처세왕'의 서인국 이하나

'트로트의 연인'의 지현우 정은지

파트너 바꾼 월화극 최강 커플은?

'메리대구' 지현우-이하나·'응칠' 서인국-정은지 '고교처세왕' '트로트의 연인'서 짝바꿔 새 로맨스

현재 방영 중인 두 편의 월화드라마가 '파트너 체인지'로 시청자의 눈길을 모으고 있다.

tvN 월화드라마 '고교처세왕'의 두 주인공 서인국 이하나는 KBS2 월화드라마 '트로트의 연인'에 출연 중인 정은지 지현우와 각각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서인국과 정은지는 tvN '응답하라 1997'(2012)로 '응칠 신드롬'을 일으키며 가수에서 연기자로 변신에 성공했다. 이하나와 지현우는 MBC '메리대구 공방전'(2007)을 통해 '하나야총'을 형성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서인국이 새로운 파트너 이하나와 함께 하는 '고교처세왕'은 고교 아이스하키 선수 이민석(서인국)이 형 대신 대기업 본부장 행세를 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 '코믹 오피스 활극'이다. 극중 이하나는 촌스럽고 어설퍼도 미워할 수 없는 계약직 여사원 정수영을 연기한다. 정수영은 이하나가 '메리대구 공방전'에서 선보였던 4차원 황메리 캐릭터와 비슷한 듯 다른 매력을 지녔다.

이하나는 당시 황메리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차세대 로코퀸(로맨틱 코미디의 여왕)으로 거론됐다. 그는 차기작으로 KBS2 '태양의 여자', MBC '트리플' 등을 선택하며 이미지 변신을 꾀했으나 반응은 예상보다 좋지 않았다. 그 뒤로 이하나는 약 5년간의 긴 공백기를 보냈고 정수영 역으로 다시 한 번 로코퀸 자리를 노리고 있다.

'고교처세왕'의 시청률 역시 평균 1.8%, 최고 2.0%(닐슨코리아, 유료플랫폼 기준)를 기록하며 케이블 드라마 중에선 좋은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

'메리대구 공방전'에서 '메리의 남자 대구'를 연기했던 지현우는 군 전역 후 복귀작으로 '트로트의 연인'을 택했다. '트로트의 연인'은 여주인공 최춘희(정은지)가 천재 작곡가 장준현(지현우)을 만나 트로트의 여왕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사랑을 그린 코믹 멜로드라마다.

트로트 여왕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답게 연기는 물론 노래 실력까지 갖춘 배우가 필요했고 최춘희 역은 걸그룹 에이핑크의 리드보컬이자 '응칠'로 연기 합격점을 받은 정은지로 낙점됐다. '트로트의 연인'의 연출자인 이재상 PD는 "연기력과 매력, 노래 잘하는 사람을 원했다"며 "정은지 캐스팅은 100점"이라고 캐스팅에 만족해했다.

그러나 '트로트의 연인'의 성적은 지현우의 복귀작과 정은지의 지상파 첫 주연작으로 기대를 모은 것에 비해 부진했다. 7일 방송분의 시청률은 6.5%로 지난회보다 0.4% 포인트 상승했으나 여전히 지상파3사 월화드라마 중 가장 낮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장준현과 최춘희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뒤로 관계가 발전하고 있어 멜로를 기대하는 시청자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정지은기자 jungkim@metroseoul.co.kr

안재현 '너포위' OST 참여

배우 안재현(사진)이 SBS 수목극 '너희들은 포위됐다' OST에 참여했다.

오는 10일 OST '그게 너였다'를 공개한다. 데뷔 후 처음이다. 감미로운 목소리로 모델, MC, 배우 이외에 다른 매력을 보일 예정이다.

안재현은 연기자로 데뷔하기 전 라디오 '신동의 심심타파' 스페셜 DJ와 '김창렬의 올드스쿨' 고정 게스트로 출연해 중저음의 목소리로 청취자의 귀를 사로잡았다.

배우로서도 은근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그는 올 초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천송이(전지현) 동생 천윤재로 주목 받았다. 현재 드라마 '너포위'에선 미소년 같은 외모와 매력적인 목소리로 여심을 사로잡는 강남경찰서 신입 경찰 박태일 역으로 활약 중이다.

/전효진기자 jeonhj@

설경구 뉴욕아시안영화제 수상

한국배우 첫 아시안 스타상 영예

배우 설경구(사진)가 한국 배우 최초로 제13회 뉴욕아시안영화제에서 '아시안스타상'을 수상했다.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미국 뉴욕 현지 시각으로 7일 저녁 링컨 센터에서 열린 북미 최대의 아시안 영화 축제 뉴욕아시안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 아시안 스타상은 뛰어난 감성표현과 영화에 대한 지속적인 열정을 보여주는 배우에게 주는 상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최근 '감시자들', '소원'에서 선 굵은 연기를 선보이며 토론토 영화제에 초청되고 청룡영화제 인기스타상과 백상예술대상 남우주연상을 거머쥔 설경구는 이번 뉴욕아시안영화제 '아시안스타상'을 수상하면서 또 한번 자신의 진가를 입증했다.

또 미국 영화 전문지 스크린 인터내셔널과 필름비지니스아시아 등 다수의 매체가 설경구의 수상 소식을 보도하는 등 언론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한편 2002년 시작돼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하는 '뉴욕 아시안 영화제'는 매년 여름 뉴욕에서 열리는 아시아 영화제로 떠오르는 아시아스타상', '아시아스타상', '아시아 굿로스타상' 등을 시상하며 한국·일본·중국·홍콩·인도네시아·태국·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의 작품을 상영한다.

/유순호기자 sun@

일본 팬 "박유천 보고 싶다"

드라마 팬미팅 개최…티켓 경쟁률 5대1

그룹 JYJ의 박유천(사진)이 MBC 드라마 '보고 싶다' 일본 팬미팅을 연다.

박유천은 9일 일본 요코하마 아레나에서 1만2000여명의 일본 팬과 만난다. 팬미팅 티켓 경쟁률이 5대1에 달해 일본 내 박유천의 인기를 짐작하게 했다.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박유천이 '보고 싶다' 팬미팅을 위해 8일 일본에 입국했다"며 "하네다 공항에는 그를 마중하기 위해 1000여명의 팬이 모였다"고 전했다.

'보고 싶다'는 지난해 1월 종영한 후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드라마 DVD가 발매 전부터 예약 순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박유천은 한 여인을 향한 그리움을 간직한 채 범인을 쫓는 한정우 역할로 호평을 받았다.

올해 종영한 SBS 드라마 '쓰리데이즈'도 일본에서 다시 보기 열풍이 부는 등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전효진기자

날씨

환삭으로 인한 기침은 낮보다 밤에 더욱 심해집니다. 기침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낀다면 먼저 금연한 후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신체대학교 서울백병원 (www.rsl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5	8				7
			9				3	4
				4				5
		7	4					3
4				1				9
5					6	7		
9				5				
1	5				2			
2				6	9	3		

	9			1				7
				5			8	6
	6			8	2	9		4
						4	6	
			7		5			
	2	1						
3		7	1	6			5	
8	1			2				
6				7			4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보누스
(주)스도쿠 리미티드
(마이클 리오스 지음)

캣우먼

칼럼니스트
catwoman@metroseoul.com

솔직한 감정표현 고쳐야 하나 '제멋대로' 보일수 있으니 조심

Q Hey 캣우먼!

제 성격이 곧갑다고 표현하는데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솔직하게 감정 표현을 하는 편이에요. 좋을 때야 문제가 안 되지만 화가 나면 직선적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물론 시원시원하고 뒤끝 없이 지낸다고 얘기도 듣지만 가끔 욱해서 실수를 할 때도 있죠.

사회생활에서 이런 성격은 혼란을 주네요.

사회생활에 적절한 성격은 어떤 건가요? 이런 직선적인 성격이 꼭 개조해야할 만큼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나요? /회사

A Hey 화자!

지금 뭐를 있으신데요. 자기 성격에 대한 시작을 받고 뒤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의 불같거나 직선적인 성격은 사실 수많은 소심하고 연약하는 타협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격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상황에 타협하는 것은 싫어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느끼는 것을 직선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이 꼬이고 애매한 세상에서 시원한 쾌감을 주지요.

그러나 직선은 '정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제멋대로'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밤에 발뻗고 자기 위해 주변에 민폐를 끼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죠. 주변은 안 보이고 '나'만 보이니까.

성격은 개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당신은 조금 억울한 마음으로 '내가 왜'이라는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에서 변화를 시도하면 주변 상황이 내가 바라는 만큼 같이 변화해주지 않았을 때 '내가 이럴게까지 주변을 위해 노력했는데'라며 더 욱할 뿐이지요.

불같고 욱한다면 나의 정의감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걸 그냥 놔두질 못하는 성격인지도 되돌아봐야 하고요. 사람들이 내게 거부감을 갖기보다 내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보세요. /캣우먼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독선적인 부친 건강운과 여생 어떨지 가족이 힘들겠지만 77세 이후 좋아져

기해생 남자 45년 2월 26일 음력 밤9시경

Q 많은 나이시지만 아버지의 운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 살아 선생님께 글 올립니다. 아버지의 성향이 너무 강하고 독선적으로 살아오면서 가족들이 많이 힘들었고 지금도 거세기 여전하십니다. 살아오신 과정도 무척 힘드셨을 텐데, 왜 가족 모두 오순도순 살지 못하고 말년까지도 아픈 어머니와 저희 형제들을 고통스럽게 하시는지.

아버지의 독선과 본인만의 생각이 너무 강해 세면니와 틀어졌네요. 돌아가시면 후회할까 자식을 분노하게 하니 커서는가슴이 아픕니다. 선생님, 아버지의 건강 운과 여생이 좋은 쪽으로 움직였으면 합니다.

A 천유불측풍우 인유조석화복(天有不測風雨 人有朝夕禍福)이라 하늘에는 예측할 수 없는 비바람이 있고 사람에게는 아침과 저녁으로 재앙과 복이 있다. 동양고전신서(明心寶鑑)의 명심보감 글귀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조화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맑은 날씨에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모이들어 비가 오기도 하고 소나기가 억수같이 퍼붓다가 잠시 후에 태양이 빛나기도 한다. 인간의 길흉화복도 이와 마찬가지로 변화무쌍하다. 오직 선과 덕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사람은 복을 받고 악과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은 언제 재앙을 받을지 모른다.

오직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다. 공자께서도 아침에 도리를 깨달아 깊인 저녁에 죽어도 가하다고 말씀하셨다.

부친은 이런 말씀들을 잘고 뭇컥셨는데 분목(焚木) 불에 타는 다무(나무)와 같은 석장으로 운세가 흘러서 불쌍에 일각 죽는 형상이니 세상을 향해 굿은 뜻을 이루어 내지 못한 한의 기운이 폭발적인 성향으로 나타났습니다. 밖에서는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러다보니 가까운 사람에게 인타까운 시절로 여타우신 것이 가족들에게는 힘든 여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듣자는 이해를 하지만 무리 모두에게 가슴 아픈 일들입니다. 이를 사주로는 상관(傷官) 견관을 위화라하는데 구의(口舌) 말의 말의 벌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상대의 입에서는 무시당하고 고통스러웁니다. 당신과 양인격(羊刃格) 양의 뿔과 같이 강하고 날카로움)으로서 다듬을 수기 없습니다. 성정은 기운에 바뀌는 7F세 식재(食財) 식신과 재성이 되어야 좋아게 되니 76세까지를 잘 넘기면 77세 부터는 섬이가 누그러지십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7월 9일 (음 6월 13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가장이 중심 잡아야 한다. 60년생 딴생각 말고 하던 일에 매진하라. 72년생 분주하게 움직이니 실속은 좋코다. 84년생 여유 있을 때 자기계발에 힘써라.

소 49년생 듣기에 좋은 말만 듣지 말라. 61년생 고집부리면 적만 늘어난다. 73년생 감정에 예민하니 다투는 일은 절대 피하라. 85년생 작은 것에 만족해야 큰 것 얻는다.

호랑이 50년생 삶에 활력소 될 일 생긴다. 62년생 애타문제로 사귀 만나는 일은 신중할 것. 74년생 가슴에 단비가 내린 격이다. 86년생 상사의 충고에 토 달지 말라.

토끼 51년생 기다리는 자녀의 냉정할 것. 63년생 생각도 못한 이득이 생긴다. 75년생 네 뭐도 만나야 할 사람은 꼭 만나라. 87년생 직장인은 뜻밖의 성과에 박수가 쏟아진다.

용 52년생 적당한 임상은 도움이 된다. 64년생 내 생각을 남에게 강요 말라. 76년생 주관대로 일을 진행해야 후회 없다. 88년생 개성파는 이미지 개선에 신경 써라.

뱀 53년생 카드로 결제 전 연수증 잘 살펴라. 65년생 가는 날이 장날인 격이다. 77년생 한번 결정했으면 뒤돌아보지 말라. 89년생 현 상황에 만족하면 불문도 따른다.

말 42년생 배우지 녀려에 감동 먹는다. 54년생 돈이 따른 흔들리지 말라. 66년생 오랫동안 공들인 매매는 성사가 된다. 78년생 오늘보단 내일을 생각하며 움직여라.

양 43년생 실리보단 명예를 선택할 것. 55년생 맘을 몰린 만큼 결실을 맺는다. 67년생 급할수록 느긋한 마음이 필요 ~ 79년생 문서 일을 서두르면 실수가 생긴다.

원숭이 44년생 생각이 많으면 불청객이 된다. 56년생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않도록 조심~ 68년생 자영업자는 수입보다 지출이 늘어 고민~ 80년생 궁하면 통하는 법이다.

닭 45년생 반발 심한 일은 삼가라. 57년생 청류이 여의주를 물은 격이다. 69년생 관재수가 따르니 서비는 무조건 피하라. 81년생 진실과 꿈이 다름을 실감한다.

개 46년생 따뜻한 마음 주위에 유쾌하다. 58년생 명예보다 실속을 선택할 것. 70년생 게임이나 내기를 하면 승률이 높다. 82년생 이성문제는 생각대로 잊어 풀려 이혼~

돼지 47년생 무관한 일엔 관심 꺼라. 59년생 문서일은 관망하는 게 좋다. 71년생 흥락자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노력할 것. 83년생 귀인을 만나 잠자던 꿈을 깨운다.

이재원·김주찬 '꿈의 4할' 본격 레이스

프로야구 원년 백인천 기록 넘어서기
반환점 앞두고 핵심 관전 포인트 주목

SK 와이번스 이재원(26)과 KIA 타이거즈 김주찬(33)이 인간의 한계로 불리는 '꿈의 타율(4할)' 레이스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재원은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네 번째로 75경기 이상 타율 4할을 기록하고 있으며, 김주찬은 최근 무섭게 타율을 끌어올리며 추격에 나섰다.

이재원은 팀이 75경기를 치른 7일 타율 0.401을 기록했다. 고 장효조(당시 삼성 라이온즈)가 1987년 기록한 '71경기 타율 4할'을 넘어선 이재원은 이제 백인천(당시 MBC 청룡)이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에 달성한 '80경기 타율 4할'에 도전한다.

백인천은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유일한 4할 타자다. 1982년 한국 프로야구는 팀당 80경기만 치렀고, 감독 겸 선수로 뛴 백인천은 0.412로 시즌을 마쳤다.

팀당 128경기를 치르는 올해 시즌 타율 4할을 기대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경기 수로 기준을 바꾸면 이재원은 백인천의 기록에 근접했다.

또 팀 경기 수를 기준으로 이재원보다 오랫동안 타율 4할을 유지한 타자는 백인천을 포함해 세 명뿐이다. '바람의 아들' 이종범(현 한화 이글스 코치)은 해태 타이거즈에서 뛴 1994년 팀이 104경기를 치를 때까지 4할을 지켰다. 또 한화 이글스 김태균도 2012년 89경기 동안 타율 4할을 기록했다. 이재원이 백인천의 80경기에 도달하면 김태균의 기록도 가시권에 들어온다.

반면 부상으로 한계 규정타석을 채우지 못한 김주찬도 무서운 속도로 타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김주찬은 규정타석을 채우지 못해 올 시즌 타격 순위표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지난달 20일 두산 베어스와의 잠실 경기를 시작으로 5일 목동 넥센 히어로즈전까지 10경기 연속 멀티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를 치며 시즌 타율을 0.391로 끌어올렸다.

김주찬은 4월 16일 오른 발바닥 부상, 5월 왼쪽 새끼손가락 부상으로 두 차례 1군 엔트리에서 제외돼 7일까지 49경기에만 나섰다. 하지만 부상 복귀 후 꾸준히 경기에 나서며 규정타석 진입을 눈앞에 뒀다.

226타석에 들어선 그는 규정타석(233타석·팀 경기 수 X 3.1타석)에 7타석이 부족하다. KIA는 7일까지 75경기를 치렀다. 김주찬이 현재 몸 상태를 유지한다면 팀의 85경기 내외에서 규정타석에 진입할 수 있다.

김주찬은 3~4월 15경기 0.258, 5월 7경기 0.375, 6월 22경기 0.467, 7월 5경기 0.526으로 점점 타율을 끌어올렸다. 이 정도 속도라면 규정타석 진입과 함께 타율 4할을 넘어설 수 있다.

어느덧 반환점을 눈앞에 둔 프로야구의 열기가 이재원과 김주찬의 '꿈의 타율' 경쟁으로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illegible]기자 ysw@metroseoul.co.kr

이재원 /연합뉴스 김주찬 /연합뉴스

텍사스 홈구장에 애국가 퍼진다

11일 '한국인의 날' 기념행사…원더걸스 예은 불러

미국프로야구(MLB) 텍사스 레인저스의 홈구장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진다.

댈러스 한인회와 현지 매체 뉴스코리아는 "'한국인의 날'인 오는 11일 오후 7시 5분(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리는 텍사스 레인저스와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 경기에서 원더걸스의 예은이 애국가를 부른다"고 밝혔다.

한인회와 함께 '한국인의 날' 행사를 기획한 텍사스 구단은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또 구단 측은 한인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애국가를 미국 국가보다 먼저 부르도록 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미국에서 체류 중인 예은은 오전 11시 댈러스로 이동해 추신수(사진)와 사인회에 먼저 참석 후 행사에 합류할 예정이다.

/김지은기자 [illegible]

박인비(26·KB금융그룹·사진)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커리어 그랜드슬램에 재도전한다.

커리어 그랜드슬램은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 4개 메이저 대회를 모두 우승하는 것이다. 역대 여자골프에선 6명의 선수만 이 기록을 보유했다.

박인비가 10일부터 나흘간 영국 랭커셔 로열 버크데일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리는 브리티시여자오픈(총 상금 300만 달러)에서 우승하면 아시아 선수로선 처음으로 대기록을 세우게 된다.

그는 지난해 메이저대회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 LPGA 챔피언십, US여자오픈을 차례로 정복했다. 그러나 브리티시여자오픈에서 공동 42위에 머물며 제동이 걸렸다. 올해에는 지난해만큼 우승하진 못했지만 지난달 매뉴라이프 파이낸셜 클래식에서 LPGA 투어 첫 승을 신고하며 샷 감각을 유지하고 있다.

그랜드 슬램 도전에 경쟁자들이 만만하지 않다. 올 시즌 LPGA 투어에서 3승을 올리며 세계랭킹 1위를 되찾은 스테이시 루이스(미국), US여자오픈을 제패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재미동포 미셸 위의 상승세가 상당하다.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에서 맹활약하는 안선주(27)와 신지애(26), LPGA 투어 멤버 최나연(27·SK텔레콤)과 김인경(26·하나금융그룹)도 [illegible]에 나선다.

/전효진기자 [illegible]

"류현진 올스타에 뽑혔어야"

美 ESPN, 아쉽게 출전 못한 선수 거론

류현진(27·로스앤젤레스 다저스·사진)이 '아쉽게 올스타에 뽑히지 못한 선수' 중 한 명으로 선정됐다.

미국 ESPN은 8일 올 시즌 맹활약하고도 올스타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선수의 이름을 열거하며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류현진을 올스타전 엔트리에 넣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ESPN은 fWAR(팬그래프닷컴이 측정한 대체선수대비 승리기여)에서 류현진은 내셔널리그 10위에 올려놓은 것을 근거로 삼기도 했다. 이어 "류현진은 올해 새로운 커브를 선보이며 좋은 결과물을 얻었다. 올스타전에 한국 선수가 나선다면 한국에서도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시청률이 상승했을 것"이라고 류현진이 마케팅적인 이점까지 지녔음을 강조했다.

류현진은 7일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발표한 내셔널리그 올스타 투수 12명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다저스 1·2선발 클레이턴 커쇼와 잭 그레인키가 각각 선수 투표와 감독 추천으로 올스타에 뽑혀 류현진까지 올스타에 출전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올해 올스타전에 세 명 이상의 투수를 배출한 팀은 없다.

ESPN은 류현진과 함께 크리스 세일(시카고 화이트삭스), 코리 클루버(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앤서니 렌던(워싱턴), 이안 킨슬러(디트로이트 타이거스), 버스터 포지(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앤드루 매커친(피츠버그 파이리츠) 등을 아쉽게 올스타에 나서지 못하는 선수로 꼽았다.

한편 류현진은 9일 오전 8시 8분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10승에 재도전한다.

/[illegible]기자 [illegible]

프로야구 전적 8일

■ 잠실

팀				계
두산	123	004	400	14
LG	020	050	100	8

[illegible]

■ 문학

팀				계
KIA	022	001	041	10
SK	000	003	201	6

[illegible]

■ 대구

팀				계
롯데	000	000	000	0
삼성	010	003	00X	4

[illegible]

■ 청주

팀				계
넥센	3011	000	3	17
한화	102	000	0	3

[illegible]

www.hanatourist.com

강남점 1600-6963

예약문의 1577-1212

당사는 관광진흥법, 소비자보호법,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등에 명시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